

거제학연구 정책 제안 최종 보고서

정영신(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전영준(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장, 사학과 교수)

전갑생(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목 차 >

1. 과업의 개요 및 추진 상황	1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경과.....	2
2. 지역학의 개념과 거제학의 정립	4
2-1. 지역과 지역학의 개념.....	4
2-2. 지자체 조례와 지역학의 개념.....	6
2-3.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7
2-4. 거제학의 종합적 성격.....	9
2-5. 거제학의 정립과 과제.....	10
3.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타 지역학 사례 연구	11
3-1. 지역학 연구의 주체.....	11
3-2. 지역학 연구 주체의 장단점.....	15
3-3. 지역학 선도기관 사례별 특징.....	16
3-4. 지역학 사례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27
3-5. 지역학 연구의 주체별·지역적 특성 검토.....	30
3-6. 지역학 연구 관련 제도에 관한 검토.....	31
3-7. 지역학 연구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	40
4. 거제학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42
4-1. 거제의 현황: 인구변동과 인문사회적 토대.....	42
4-2. 거제의 현황 종합.....	51
4-3. 거제의 미래 비전 논쟁과 거제학.....	52
4-4. 거제학 정립을 위한 기초 과제: 역사·사회문화·생태 중심 거제학 토대 구축...	59
5.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발전 방안	62
5-1.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의 기본 방향.....	62
5-2.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로드맵.....	62
5-3. 제도 구축: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64
5-4. 거버넌스 구축: (가)거제학포럼 운영.....	68
5-5. 거제학 네트워크 구축.....	69
5-6. 거제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	72
5-7. 거제학 토대사업.....	74
5-8. 거제학 연구사업.....	74
5-9. 거제학 협력사업.....	75
5-10. 거제학 도약사업.....	75
5-11. 거제학연구센터 조직 구성.....	77
5-12. 거제학연구센터 재정 계획.....	78
5-13.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단계별 계획.....	79
5-14.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전망.....	80
6. 연구 결과의 요약	82
<부록>	85

1. 과업의 개요 및 추진 상황

1-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거제 지역은 근대 이전 시기에 동남권 해안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서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피난민도시인 부산, 군항도시인 진해가 성장하고 1970년대에는 마산·창원 공업지역이 성장하면서 거제의 지위는 축소·주변화되었다.
- 1980년대 이후 거제는 조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격한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거제의 근대화는 한편으로 거제의 경제적 성장과 거제인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또한 거제시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의 271,361명을 정점에 달했으나, 그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252,395명에 이르렀다.¹⁾
- 그런데 조선산업 일변도의 발전은 조선산업지대 중심의 발전과 도시화를 낳았지만, 단일산업구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역경제의 잠김(lock-in) 효과를 낳았다.²⁾ 이로 인해 조선산업 하청업체의 ‘기능적 잠김’으로 인한 산업 다양성 훼손과 단일산업 구조의 형성, 지속적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형성된 ‘정치적 잠김’으로 지역 내 산업 재편역량의 상실, 그리고 정부지원을 통해 조선산업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인지적 잠김’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다른 경로를 상상하기 힘든 한계를 낳았다. 따라서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조선산업의 위기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후퇴는 거제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 역시 제기하고 있다.
-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거제의 발전과 근대화는 또한 농업과 어업을 중심으로 한 거제 농어촌 지역의 쇠퇴와 축소를 가져왔다. 거제 내부의 소득이나 인구분포 등에서 거제 내부의 양극화는 심화되어 왔다. 또한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바다와 해안, 섬으로 구성된 거제의 민속과 문화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거제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발굴과 보존, 거제의 역사에 관한 정리 작업이 미진한 상태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
- 따라서 거제 지역의 언어, 민속, 문화, 역사, 사회경제 등을 연구하고 정리하여 지속가능한 거제의 미래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점차 고조되

1) 거제시(2020),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 거제시, 18쪽.

2) 우정석·이승철(2018), “거제시 조선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잠김 효과”, 『국토지리학회지』 52(4).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제의 민속과 문화, 역사와 생태적 유산과 자원에 대한 발굴과 정리 작업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제 시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과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거제학 연구 정책제안」 과업은 위와 같은 시대적, 현실적 요구들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거제의 실정에 맞는 거제학 연구 기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1-2. 과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경과

1) 과업의 범위

- 「거제학 연구 정책제안」 과업은 2021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며, 경남 거제시 일원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 내용적 범위로는 ① 지역학 개념 및 선행연구 정리, ② 타 지역학 사례연구(제주학연구센터), ③ 거제학연구센터 조직과 주요 사업 제안 및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된다.

2) 과업의 세부내용

-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학 개념 및 선행연구 정리(지역학의 개념 및 필요성, 국내 지역학 사례 연구),
- ② 타 지역학 사례연구(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과정, 조직 및 구성 분석, 타 지역의 연구센터와 비교한 특성 연구, 제주학연구센터와의 인터뷰 및 협의),
- ③ 거제학연구센터 설립방안 제시(거제학연구센터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연구센터의 운영방안 제시, 거제학연구센터의 단계별 발전과정 제시, 세부사업 추진 계획 제안, 행정 및 재정적 계획 제안).

3) 과업의 추진 내역

- ① 2021년 7월 5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 개최.
- ② 2021년 10월 21-22일, 제주학연구센터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박물관 등 제주 내의 연구기관 답사·방문.
- ③ 2021년 10월 21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현석재에서 ‘중간보고회’ 개최.
- ④ 2021년 11월 30일, 최종보고서 제출.

4) 특이 사항

- 당초 과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최종보고회가 연기되었으며, 연구팀과 거제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말로 과업 기간을 연장하였다.

2. 지역학의 개념과 거제학의 정립

2-1. 지역과 지역학의 개념

1) 지역의 개념

- 지역(region, area)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일정하게 나눈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³⁾
- ‘지역’은 원래 지리학의 용어였으나 현재는 사회과학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역’은 역사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공간이며, “그 자체로 지역성을 만들고 유지하고 변형되는 살아있는 실체와 같으며, 제도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공간과 기억의 장소”로서 이념적·물질적 복합체이면서, 동시에 인간적·비인간적 요소들의 복합체로 이해된다.⁴⁾

2) 지역학의 개념

- 지역학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⁵⁾ 하지만 지역이 이념적·물질적 복합체이면서 동시에 인간적·비인간적 요소들의 복합체로 이해됨에 따라 지역학 역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따라서 지역학의 의미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지역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할 수 있다.

<표1> 지역학의 개념

연구자	지역학의 개념
박용구(1996) ⁶⁾	각 지역의 언어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대한 실체와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김대래(2001) ⁷⁾	특정 지역의 형성 과정을 시공간의 틀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

3) 다음 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search.do?q=%EC%A7%80%EC%97%AD&dic=kor>.

4)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5) 다음 한국어사전: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41999&q=%EC%A7%80%EC%97%AD%ED%95%99&supid=kkw000309651>.

	하여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기반 위에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문
하병주(2007) ⁸⁾	인문과학, 사회과학 혹은 지역의 성립과 지역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업 또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학술 연구
정정숙(2014) ⁹⁾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문화적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
김학훈(2014) ¹⁰⁾	지역 및 공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학문
이창식(2016) ¹¹⁾	일정한 지역의 지리적 공간성, 역사적 시간성, 문화적 표상성, 문화적 상징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정삼철(2019) ¹²⁾	한국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지방)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 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 이해하는 학문. 특정 지역이나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 간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융합학문.

- 지역학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지역학이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종합적·융합적 학문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한 지역의 복잡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하나의 분과학문을 통한 이해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지역학의 초기 형성 과정 역시 지역학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학의 태동은 194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제학자인 월터 아이사드(Walter Isard)가 지역경제의 분석적 접근에 관심을 보이는 경제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이사드는 시간과 특히 공간이 사회나 경제의 포괄적 이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전통적인 경제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

6) 박용구(1996),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5-31쪽.
7) 김대래(2001),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부산학의 과제”, 부산광역시 도시혁신위원회.
8)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지중해지역연구』 9(1): 249-276.
9) 정정숙(2014),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87-103.
11) 이창식(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12)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공공정책』 164: 62-64.

후에 미국에서 나타난 도시와 지역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사드는 1950년 미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관심 분야가 같은 26명의 경제학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학제적인 학문을 구상했다고 한다. 이 학문은 경제학, 지리학, 계획학 등으로부터 지역분석을 위한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을 채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되었으며, 결국 지역학(regional science)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학문으로 탄생하였다. 이후 입지와 공간 요소를 다루는 경제지리학과 통합이 시도되었고, 공간 이동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서 사회물리학적 관점이 도입되었다.¹³⁾ 이렇게 다학제적, 통합적 전통은 지역학의 학문 체계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오늘날의 지역학에서도 지역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시각을 구성하고 있다.

2-2. 지자체 조례와 지역학의 개념

- 지역학이 지니고 있는 통합적·융합적 성격을 수용한 위에서, 한국의 각 지자체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통합적 학문으로서 지역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2> 지자체 조례의 지역학 개념

조례	지역학의 개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설립 및 지원 조례(2013)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 조례(2016)	“용인학”이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용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를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용인시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2017)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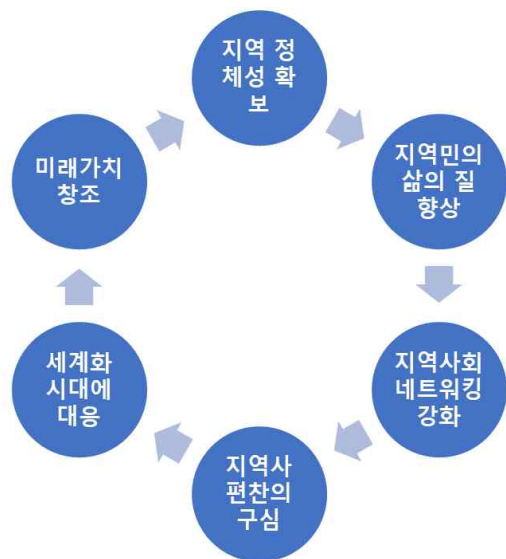
13)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89쪽.

	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 역사학 사회학 문화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19)	“세종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2021)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 지자체들의 조례에서 드러나는 지역학 개념은 해당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지역성의 다양한 면모들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지역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확립이라는 지역학 연구의 목적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2-3.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그림1>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



1) 지역정체성 확보

- 지역정체성이란 지역이 가진 다양한 요소들의 통일된 성격으로서,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드는 ‘동일성’ 및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만드는 ‘개별성’의 특성을 가진다. 지역정체성은 과거지향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양방향적 성격을 가진 유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고유한 지리, 생태, 역사,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며, 지역의 정체성이 뚜렷할수록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지닌 상징적 가치가 커지고 활용의 가능성도 증대한다.

2)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지역의 쇠퇴와 지역성의 상실 현상이 일반화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에서 토착적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높일 수 있다.
- 또한 지역 가치의 발견과 재지역화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경제 문화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3)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 지역학은 융합적인 학문인만큼 다양한 분야의 배경을 지닌 연구자, 전문가, 관련 공무원, 향토사학자,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 또한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와 실천을 확산시키며 이 과정에서 지역 내외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4) 지역사편찬의 구심적 역할

- 지역학 연구의 결과물들은 최종적으로 역사사편찬으로 이어지게 된다.

- 현대 지역학 연구는 과거의 문서자료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는 지역민의 구술, 소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인 지역사서술로 이어지고 있다.
- 또한 풍부하고 입체적인 지역사서술은 지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후속세대 교육의 자원이 된다.

5) 세계화,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세계적 변동에 대응

- 세계화로 대표되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연결과 이동의 증대 속에서 각 지역은 자신이 가진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지역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다.
-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도전과제의 등장,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위험의 증대는 국제적, 국가적 대응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그 효과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역의 도전과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학 연구의 장기적인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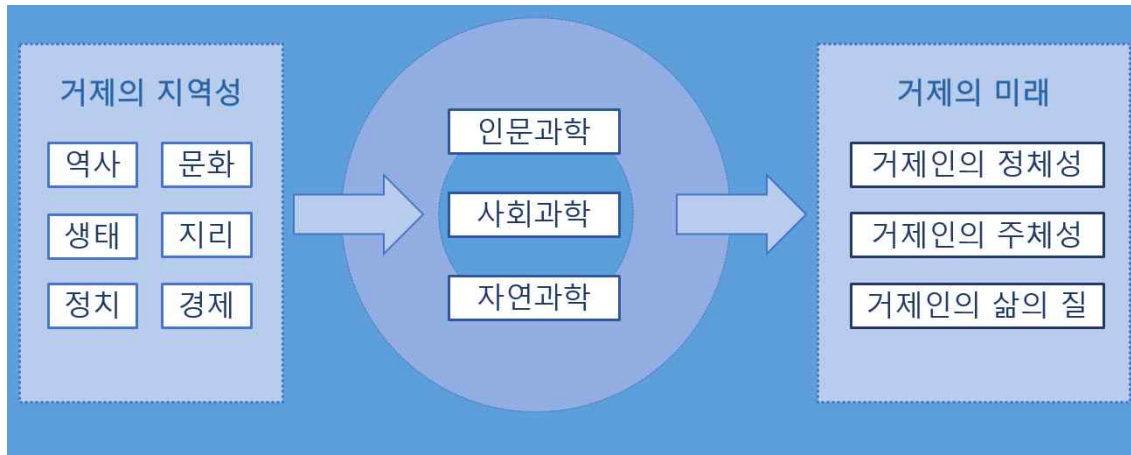
6) 지역의 역사적 가치의 재발견과 미래가치의 창조

- 지역학 연구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역학은 역사와 지리뿐만 아니라 도시, 문화, 사회, 예술, 경제, 환경 등을 아우르는 융합학문으로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창의적 해법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미래가치 창조로 이어질 수 있다.

2-4. 지역학(거제학)의 종합적 성격

- 지역학 문헌들 및 여러 지역들의 지역학 개념 정의를 참조하면, ‘거제학’은 거제가 지니고 있는 지역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인문, 사회, 자연과학의 종합적 연구를 거쳐 거제인의 정체성을 해명하고 주체성을 고양함으로써 거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2> 거제학의 종합적 성격



2-5. 거제학의 정립과 과제

1) 거제학이란?

- 거제학의 의미는 앞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다.
- 거제학은 거제의 지역성을 이루어 온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지리, 정치, 경제에 대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거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성을 확보하며 거제인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둔 지역학을 말한다.

2) 거제학의 정립을 위한 과제

- 거제학은 거제의 지역성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비롯되며 거제의 지역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학문이므로 거제학의 정립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제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① 거제 시민사회 내에서의 지지와 합의의 형성
 - ② 기존 거제학 자료의 수집과 정리
 - ③ 거제학 연구 역량의 결집과 확장
 - ④ (가)거제학연구센터와 같은 형태의 거제학 연구 주체 형성
 - ⑤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 ⑥ 거제학 추진체계와 전략의 형성

3.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타 지역학 연구 사례

3-1. 지역학 연구의 흐름과 주체

1) 지역학의 정립과 한국에서 지역학의 도입

- 지역학(regional science)은 지역에 관한 학문으로서 20세기 중반에 제도화되었다. 지역학이 학문으로서 본격적으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였다. 지역학의 창시자인 월터 아이사드(Walter Isard)는 경제학을 배경으로, 기존 경제학이 지역 또는 공간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지역학과를 창설했다. 여기에는 통계지리학을 배경으로 가진 줄리안 월포트, 경제학을 배경으로 계량경영학을 전공한 벤자민 스티븐스 등이 함께 했다. 지역학은 초기부터 종합학문으로 시작된 것이다.¹⁴⁾
- 아이사드는 1955년 12월 뉴욕에서 열린 제2차 지역학회 총회에서 지역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지역학은 공간구성을 이루는 요소 중 산, 평지, 물 등 물리적 환경이 아닌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 속에 담겨져 있으면서 이들과 구분되는 결정요인들을 다루는 것이 지역학 연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차원이 결과적으로 또는 추정된 상호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외하고, 공간적 또는 지역적 관심이 중점이 되는 문제들만을 다루게 된다.” 즉, 아이사드는 물리적 요소 이외의 사회적, 생태적 요인들을 통해 지역의 공간구성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지역학을 이해했던 것이다.¹⁵⁾
- 한국에서는 1983년 8월에 한국지역학회가 설립되고 1985년 12월부터는 지역연구의 전문 학술지로서 『地域研究』가 정기적으로 발간되었다. 이때 지역학은 “지역공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지역공간을 다룬다는 뜻은 전체 공간을 동질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내 또는 지역간의 일어나는 현상들을 또는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연구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⁶⁾
- 한국지역학회의 출범 초기였던 1985년 2월의 시점에서 회원들의 전공별 분류를 보면, 행정, (도시)계획, 경제, 지리, 사회 등의 학문 영역이 포괄되어 있었다. 보

14) 유완(1985), “지역학의 정의와 재조명”, 『지역연구』 제1권, 3쪽.

15) 유완(1985), “지역학의 정의와 재조명”, 『지역연구』 제1권, 3-4쪽.

16) 유완(1985), “지역학의 정의와 재조명”, 『지역연구』 제1권, 4쪽.

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개발(20.6%)과 도시행정(5.9%) 등의 행정이 26.5%, 지리학이 17.6%, 도시·지역계획(11.8%)과 교통(8.8%) 및 건축·도시설계·조경(4.4%) 등 (도시)계획이 25%, 경제학(8.8%)과 지역경제(8.8%), 농업경제(4.4%) 등 경제가 22.1%, 사회학이 1.5%로 구성되었다(유완, 1985: 6). 즉, 한국의 지역학은 지역개발·지역경제·도시계획·교통 등 정책적·실용적 목적의 학문으로 출범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학문으로서 한국 지역학의 초기 제도화 과정에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초기 지역학에서 기초연구가 취약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한국의 초기 지역학이 지니는 성격으로 인해 지역학의 확산 과정에서 지자체에 의해 설립된 연구센터나 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외에도 대학의 연구소, 학회,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학의 형성과 발전, 확산에 기여해 왔다.
- 거제의 경우에도, 거제학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주체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학 주체들의 현황과 그 장단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자체 정책연구

-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학 연구기관은 지역학 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설립 연도 순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지자체의 지역학 연구기관

주체 유형	지역학	소속기관	연구기관	설립 연도
지자체 연구원과 연구센터	충북학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1999
	강원학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002
	부산학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3
	대구경북학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2004
	울산학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2006
	제주학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2011
	수원학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2014
	전북학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19
	경남학	경남연구원	경남학연구센터	2019

	창원학	창원시정연구원	창원학연구센터	2020
	고양학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학센터	2021
	대전세종학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2021

3) 대학연구소

- 대학의 지역학 연구소들은 1963년에 설립된 전남대학교의 호남문화연구소(현 호남학연구원)와 1967년에 설립된 제주대학교의 제주도문제연구소(현 탐라문화연구원)처럼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진 곳들도 있다. 두 연구소는 지역의 향토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 대학의 지역학 연구가 폭넓게 확산된 계기는 1993년 서울시의 출자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서울학연구소는 ‘도시로서의 서울’에 대한 종합적 학문으로서 서울학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했고, 이러한 연구 모델은 점차 다른 지역의 거점대학들로 확산되었다.

<표4> 대학의 지역학 연구소

주체 유형	지역학	소속기관	연구기관	설립 년도
대학연구소	호남학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63
	제주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67
	서울학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3
	충북학	충북대학교	충원문화연구소	1997
	전북학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7
	원주학	연세대학교(원주)	매지학술연구소	1999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울릉학	경주대학교	독도울릉학연구소	2001
	충청학	한남대학교	충청학연구소	2001
	인천학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2
	부산학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02
	충청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03
	공주학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2014
	익산학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	2017

	대구경북학	영남대학교	대구경북학연구소	2019
--	-------	-------	----------	------

3)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 연구원

- 지역학 연구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연구기관들에 의해서도 수행되고 있다. 용인문화원 산하의 향토문화연구소와 고양문화원 산하의 고양학연구소는 기존 문화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향토사와 향토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학연구실은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설립되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전주역사박물관 산하에 존재하는 전주역사실을 통해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기존의 공공 연구기관들이 지역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 연구원 설립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재정적 이유, 지역학 연구자들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힘든 학술적 여건, 지역학 연구소나 연구센터 설립 당시의 제도적 조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5>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학 연구소

주체 유형	지역학	소속기관	연구기관	설립 년도
지역 (공공) 기관	용인학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4
	전주학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역사실	2002
	충청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학연구부	2004
	경기학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	2005
	안산학	안산학연구원	안산학연구원	2007
	고양학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2020

- 표에서 제시된 연구 기관 가운데 안산학연구원은 안산시의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2007년 5월에 설립된 민간 연구 기관이다. 안산학연구원은 “안산에 관한 학제적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 안산학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교육함으로써 안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주요 사업분야로 (1) 안산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2) 안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안산학 관련 논문집 및 학술서 발간, (4)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제반 학술행사, (5) 안산학 관련 강좌의 개발과 운영,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¹⁷⁾

4) 지역 학회

- 지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회 역시 지역학 연구의 중요한 주체이다. 한국에서 지역학 연구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자들의 학제적 모임은 지역학회는 제주학회나 인천학회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역학 연구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며,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6> 지역학 연구 학회

주체 유형	지역학	단체 성격	학회	설립 년도
학회	지역학	전국 학술단체	한국지역학회	1983
	대구경북학	지역 학술단체	대구경북 '지방사회연구회' → 대구사회연구소	1985 (1992)
	전주전북학	지역 학술단체	전주전북·호남사회연구회	1987
	부산경남학	지역 학술단체	부산경남 '지역사회연구회' → 한국지역사회학회	1988 (1997)
	광주전남학	지역 학술단체	광주전남 '전남사회연구회'	1988
	지역학	지역 학술단체 연합	지역사회연구단체협의회 → 한국지역사회학회	1989 (2001)
	제주학	지역 학회	제주학회	1997
	대구경북학	지역 학회	대구경북학회	2012
	지역학	공공 포럼	한국지역학 포럼	2012
	인천학	지역 학회	인천학회	2017

3-2. 지역학 연구 주체의 장단점

- 지역학을 주도해 온 기관들은 연구역량의 확보, 연구자금의 확보, 제도적 지원의

17) 안산학연구원 홈페이지(<http://ansanhak.com/index.php>)

측면에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제학의 주제 형성 경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7> 지역학 연구 주체에 관한 종합적 검토

지역학 주제	장점	단점	거제학에의 함의
지자체 연구기관	제도적 지원 용이 연구자금 확보 용이	시민적 합의도출 필요 행정 필요에 따른 연구 왜곡 가능성(독립성 확보 필요) 기초지자체의 경우 설립이 쉽지 않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됨 연구 독립성과 기초 지자체의 제도 구축 등 단점 보완 필요
지역 공공기관	기존 제도의 활용으로 제도적 지원 용이 연구자금 확보 용이	향토사나 전통문화 등 특정 분야 집중 종합적 지역학 추진, 전문연구역량 확보에 어려움 존재	거제학연구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의 기관과 역량 부재
대학 연구소	연구인력 확보 용이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교육기능 활성화	연구인력 고령화 연구자금 확보 난점: 정부 지원은 단기적이며 선정에 어려움	거제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문사회 영역 대학 부재
지역 민간연구소	지역연구자와 시민들의 자원 활동	연구자금 확보 난점 제도권과 교류 및 연구인력 확보 필요	지역의 민간 연구역량에 대한 조사 및 네트워킹 필요
지역학 학회	풍부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한 종합비교연구 가능	주로 광역 단위에서 결성 일정 규모 연구인력 필요 연구자금 확보 난점	부산경남 지역 학회와의 연계 필요, 장기적으로 거제학회 및 학술지 발간 필요

- 여러 조건들을 고려할 때, 거제 지역에서는 거제시와 의회의 지원 아래 (가)거제학연구센터와 같은 거제학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거제학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된다.

3-3. 지역학 선도기관 사례별 특징

- 지역학을 선도해 온 기존 기관들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거제학 연구의 주제 형성 및 주제 선정과 관련한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1) 부산연구원

① 설립 목적: 부산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산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세계로 열린 환태평양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광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지역 산·관·학에서 공동으로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광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연구원을 설립한다는 목적은 지역 연구원의 가장 전형적인 설립 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산’·관·학 공동의 협력체제를 구축한 것은 지역경제의 개발에 주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② 주요 연혁

1992.08 동남개발연구원으로 개원
1994.06 부산발전연구원으로 법인명 변경
1997.01 부산발전연구원 육성조례 제정
2003.01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과 통합
2019.01 부산연구원으로 법인명 변경

③ 주요 기능: 부산연구원은 주요 기능으로 다음의 7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 1)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2)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3) 시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4) 시정의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과제수행 및 과제의 검토·자문
- 5) 출연기관 및 타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과제수행
- 6)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출판
-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

④ 하부 기관의 주요 기능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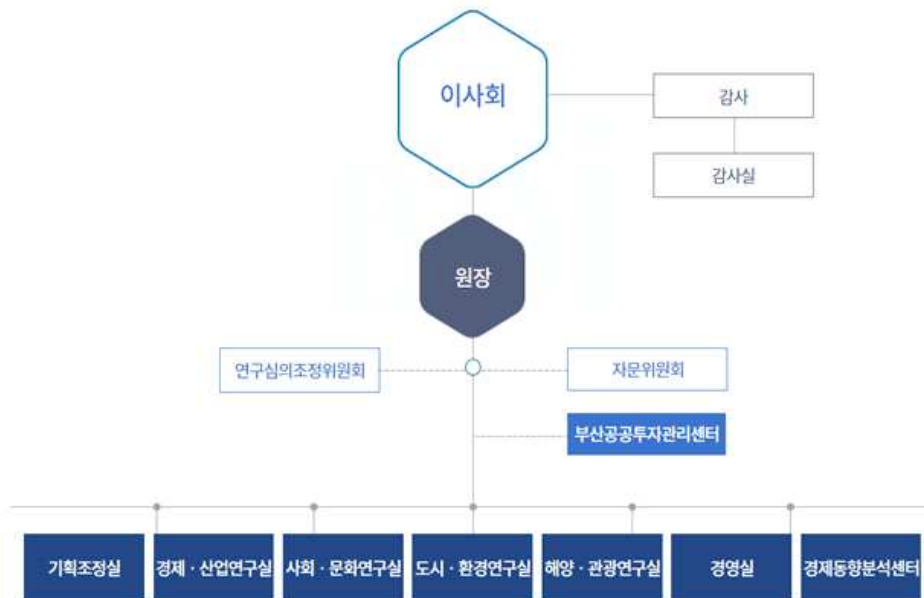
- 부산지역경제교육센터: 경제교육사업(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경제교육, 대학생 및 일반인 경제교육 등), 초청강연사업, 학술세미나, 네트워크 구축사업,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 추진(청년프론티어사업, 시민연구원 제도 운영 등),

발간 사업, 홍보

-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육성, 확산을 위해 부산학 10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부산학’은 “부산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 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부산이 가지는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주체들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며, 부산학의 연구를 통하여 부산의 정체성을 확립, 부산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 보다 나은 부산의 미래 창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후 조직 개편에 따라 사회문화연구실 산하로 편제되었다.

- ⑤ 부산연구원 조직구조: 현재 부산연구원은 여러 차례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2위 원회, 6실, 2센터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림3> 부산연구원 조직 구조



- ⑥ 특징: 부산시는 다른 광역 지자체의 연구기관과 유사하게 부산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당케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 연구원과 유사하게, 지역학 연구센터를 그 산하에 두어서 지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있다. 부산연구원의 이와 같은 조직 구조와 기능 분담은 광역지자체의 지역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조직 구조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2) 울산연구원

① 설립 목적과 기능: 울산연구원은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주요 사업 및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 울산광역시 발전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 2) 울산 주요 이슈에 대한 간행물 발간 및 학술행사 개최
- 3) 매장문화재의 지표, 시굴, 발굴조사
- 4) 학술연구 수행
- 5)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청년 CEO육성사업 수행

② 주요 연혁

- 2001.02 울산발전연구원 개원
- 2006.03 울산학연구센터, 여성가족정책센터 개소
- 2012.07 평생교육센터 설치
- 2016.06 환경교육센터 설치
- 2018.01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 2020.06 울산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③ 조직 구조: 울산연구원은 직속 기구로서 4실, 2센터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부설센터로서 울산학연구센터, 도시정보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울산빅데이터센터, 문화재돌봄센터 등 5개의 부설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림4> 울산연구원 조직 구조



- ④ 특징: 울산시는 1997년에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2001년에 울산발전연구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울산학연구센터는 2006년에 개소했다. 현재 센터장과 1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연구발간사업, 연구조성사업, 교육사업, 지역학 연구방법론 구축,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의 창달과 예술진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학연구센터는 “울산을 구성하는 사람·자연·산업·역사 등의 연구로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구심체”가 되는 ‘울산학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개소 15주년을 맞이한 울산학연구센터는 주로 역사, 그 가운데서도 미시사를 위주로 한 울산학 연구에 주력해 왔으나, 이를 예술, 생활, 성별, 자연, 주거, 문화 등으로 확대해야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조직 확대와 유명무실한 울산학포럼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¹⁸⁾

3) 서울학연구소

- ① 설립 경위: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을 육성·확산시키기 위해 서울600년을 계기

18) 『경상일보』, “‘울산학’ 문화·예술 전반 영역확대를”, 2021.01.27.

로 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의 지원 아래 서울시립대학교 부설로 설립되었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지만, 대학의 부설 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서울학의 목적과 방법: 서울학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한국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지역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학연구소는 서울학 연구를 도시 연구의 시각에서 정립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서울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서울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1) 서울학은 서울의 장소, 사람, 일,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힘을 탐구하여 서울이 지닌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서울학은 종합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학제적(역사학,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등) 연구를 지향한다.
 - 3) 서울학의 학문적 관심은 오늘의 서울을 만들어 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지만, 그 실천적 관심은 현재의 서울에 대한 심화된 성찰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다.
- ③ 조직 구조: 서울학연구소는 3개 위원회와 3개의 부서(연구기획부, 자료탐사부, 학술교류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의 중심이 되는 소장과 부서의 부장은 서울시립대 교수 가운데 총장이 임명한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제학과, 조경학과, 건축학과, 국사학과 교수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 ④ 조직 운영: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대학 내에 연구소 설립되었다. 하지만 서울시정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했지만 정책연구 보다는 학술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학 세미나, 서울학국제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서울학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 『서울학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⑤ 연구의 특징: 서울학연구소의 서울학 연구는 도시 연구의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고, 이 덕분에 서울을 도시 연구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공간환경학회와 함께 진행한 “서울을 다시 읽다”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

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되었고, 1991년부터 학술지 『공간과 사회』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공간환경에 대한 연구라는 시각에서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대한 연구를 주도해 오고 있다. 1993년에 『서울연구』를 간행하여 서울의 도시연구 흐름을 주도하였으며, 2013년에 “2013년 서울을 다시 읽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의 2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대표자”로서의 서울이 아니라 한 “장소로서의 서울”을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시도를 지속했다. 이 같은 시각은 서울학연구소가 추진해 온 서울학 연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⑥ 서울학의 연구 주제: 서울학연구소와 한국공간환경학회가 함께 추진해 온 서울학의 연구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제들은 현재 공간환경으로서 도시에 대한 연구가 어떤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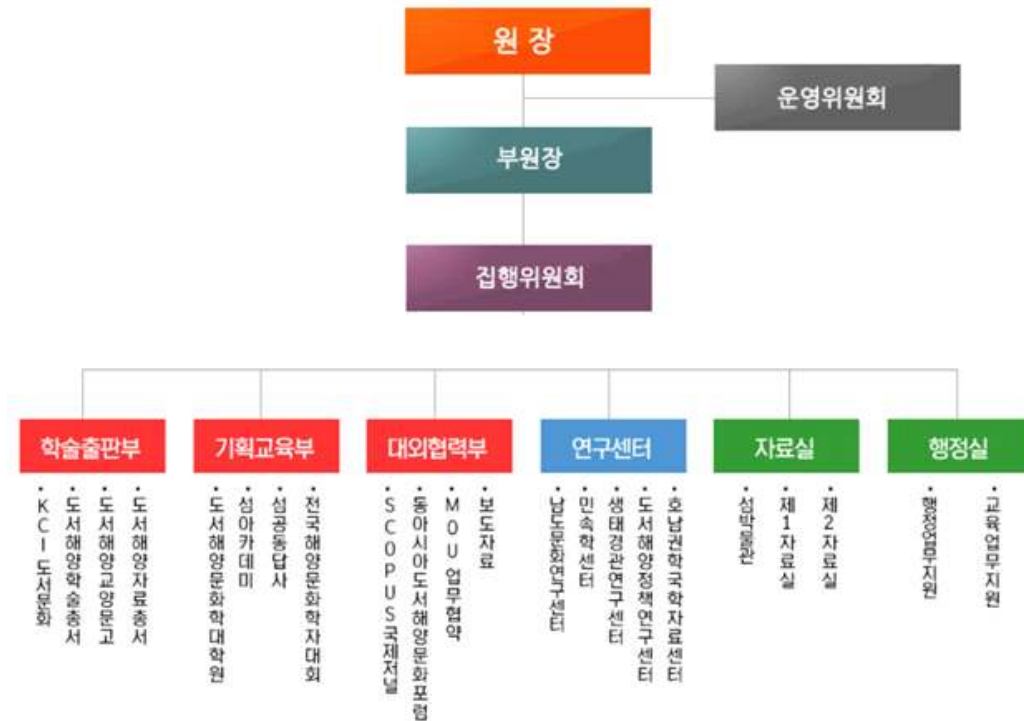
- 1) 도시개발: 주택, 메가프로젝트, SOC개발 등
- 2) 도시계획: 토지이용규제, 도시공간구조 등
- 3) 사회: 교육, 여성, 복지, 소수자, 도시빈민, 노인, 이주민, 계급 등
- 4) 환경: 녹색개발주의, 에너지, 기후변화, 대기환경 등
- 5) 고용/산업: 노동시장, 실업, 산업구조변화, 산업의 지리 등
- 6) 정치: 선거의 정치지리, 성장연합정치, 풀뿌리정치, 저항과 대안의 공간(예. 마을공동체운동, 사회운동, 광장의 정치, 사회적 기업 등) 등
- 7) 문화: 경관, 장소마케팅, 디자인, SNS 등(주제에 따른 접근 외에 “장소별 접근”도가능)

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① 설립 경위: 도서문화연구원은 지역학 연구소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섬과 바다를 조사,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향해 왔다. 현대 도서문화연구원은 “한반도 서남해에 대한 항해를 시작한 이래 한반도 전 해역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인접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해역으로 연구의 시야와 범위를 확장, 심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 ② 설립 목적과 연구의 시각: 도서문화연구원은 지역학 연구 기관들 가운데 ‘도서’ 연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연구 대상을 지니고 있으며 도서문화 연구를 위한 독특한 시각을 발전시켜 왔다. 도서문화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섬과 바다는 항구와 포구, 해안, 해변 등을 매개로 내륙을 포함한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섬과 바다를 포함한 지역과 해역 전체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식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주요 연혁: 도서문화연구원은 1983년에 설립되어 비교적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학술지와 연구총서 출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연구의 성과를 축적해 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HK(인문한국)사업에 선정되면서 연구 자금과 연구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 1982년 도서문화에관심있는 교수들의 연구회 시작
 - 1983.03 도서문화연구소 발족
 - 1983.10 『도서문화』 발간 시작
 - 1986.04 『도서문화연구자료총서』 시리즈 발간 시작
 - 1999.11~2006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지원과제 선정
 - 2000 장보고 해양루트와 중국문화 답사, 대마도 학술답사
 - 2002 목포시민과 함께하는 “남도 화전놀이와 들차회” 개최
 - 2005 『아시아해양문화총서』 시리즈 발간 시작
 - 2010 도서문화연구원으로 개칭
 - 2010.01 목포대학칙 개정, 총장 직속 연구기관으로 확정
 - 2010.05 한국연구재단 지원 HK ‘섬의인문학연구단’ 출범
 - 2013.11 동아시아도서해양문화포럼개최 시작
 - 2020.09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선정
- ④ 조직 구조: 도서문화연구원은 ‘도서문화’ 연구라는 고유한 주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축적하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지역학 연구소로 성장하였다. 도서문화연구원은 전문적인 연구센터 이외에도 학술출판부, 기획교육부, 대외협력부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학술, 교육, 출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5> 도서문화연구원 조직 구조



⑤ 주요 사업: 도서문화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추진해 온 ‘HK 섬의 인문학 사업’을 꼽을 수 있다.

- 1) 개요: 인문한국(HK) 사업이란 학문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기획된 학제적 통섭연구를 장기적으로(10년) 지원하는 국가적 인문학 연구 지원 사업으로, 매년 약 8억 4천만 원(간접비 포함)씩 지원하고 있다.
- 2) 인력양성: 2011년 1학기부터 학부과정, 2012년 1학기부터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3) 연구 분야: 문학 예술, 역사 고고, 종교 철학, 사회 문화, 생태 지리, 정책 응용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의 변천에서부터 바다의 공유와 사회의 진화, 섬과 바다의 생태순환과 기후, 섬 주민들의 삶과 복지 등 인문학 연구에서 출발해서 사회과학, 정책연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도서문화연구원의 ‘섬의 인문학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⑥ 특징: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섬의 문화, ‘도서 문화’의 연구라는 독특한 연구 대상을 개발함으로써 지역학 연구의 고유한 대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목

포대를 비롯한 전남 지역의 지역학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으로 학술총서를 발간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프로그램에 선정됨으로써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도서문화연구원의 이 같은 발전은 대학 소재 지역학 연구소의 장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5)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① 경남연구원 설립 목적

- 경남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설립 목적을 “지역경제·사회발전, 지역발전 분야에 관한 제반 과제에 대한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를 위하여 (1) 지역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지역발전 관련 정책대안 모색, (3) 산업경제, 제도개선 및 경제·사회 현안 과제의 조사·연구, (4) 지역경제·사회에 관한 통계 및 정보자료 수집제공, (5)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6) 출연기관 및 타 기관단체의 연구의뢰 사업 및 원가계산업무, (7) 지역발전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조사 연구내용의 발간, (8)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② 경남연구원 주요 연혁

- 1992년 12월 개원
- 2000년 3월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9년 9월 경남발전연구원 신청사 개청
- 2015년 4월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개소
- 2019년 7월 경남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③ 경남연구원 주요 기능

-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개발

-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연구
- 도시계획·교통·환경·관광·농어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 지역개발 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공급
-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학술 및 정보교류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역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대안 모색
- 산업경제, 제도개선 및 경제·사회 현안과제의 조사·연구
- 지역경제·사회에 관한 통계 및 정보자료 수집제공
- 역사문화 정책개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
- 재정·민자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조사·연구
- 지역발전과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경제 및 외교안보·통일에 대한연구
- 출연기관 및 타 기관단체의 연구의뢰 사업
- 지역발전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조사 연구내용의 발간
- 도서출판 및 교육사업

④ 경남연구원 조직 구조

- 경남연구원은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대외협력국, 미래전략본부, 연구전략실, 경영전략실을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 도정에 필요한 특화된 연구를 위해 혁신선장경제연구실, 포용협력사회연구실, 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 지속가능한 경연구실을 두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의 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공공투자개발 관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센터를 두고 있다.
- 경남연구원의 여러 부서들 가운데 지역학, 거제학 연구와 관련된 주요 부서로는 역사문화센터를 꼽을 수 있다.

⑤ 역사문화센터 기능과 역할: 역사문화센터는 “경상남도 역사문화에 관한 보존, 관리, 활용정책, 경남의 주요 유적 발굴조사 및 연구, 출토 유물의 보관 및 보존 과학, 발굴 자료관의 운용 및 사회교육, 학술지 발간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상남도 역사문화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⑥ 역사문화센터 주요 연구업무

- 가야사 복원사업 및 경남의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 경남의 주요유적 및 가야유적 관련 학술 발굴조사연구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 관련 연구 및 지원
- 문화재의 관리(유물보관, 국가귀속 등), 보존(보존과학) 등
- 발굴자료관의 운영 및 사회교육(문화유산답사 및 체험), 학술지 발간
- 기타 문화재와 관련한 연구

⑦ 경남연구원 관련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 경남연구원 운영규칙
- 경남연구원규정집

⑧ 특징: 경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거를 제공받고 있는 타 지역의 지방연구원과 유사·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남연구원 자체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거제학 연구기관의 설립을 고려할 때, 경남연구원은 그 상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경남연구원 관련 자치법규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거제의 역사와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 기능이 경남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4. 지역학 사례 연구: 제주학연구센터

① 비전과 목표: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은 제주의 언어, 역사, 민속 등을 담은 그릇이다”는 구호 아래,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을 표방하는 제주학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연구센터 독립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제주학 및 지역사회 자원 구축을 목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② 주요 연혁: 제주의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연구는 1967년 탐라문화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후 제주학의 발전 과정에서 민간을 포함한 제주의 민속과 언어 및 제주4.3사건 연구 등 제주학의 연구는 폭넓게 확장되어 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제주학 연구의 성과를 모으고 진흥하기 위해 제주학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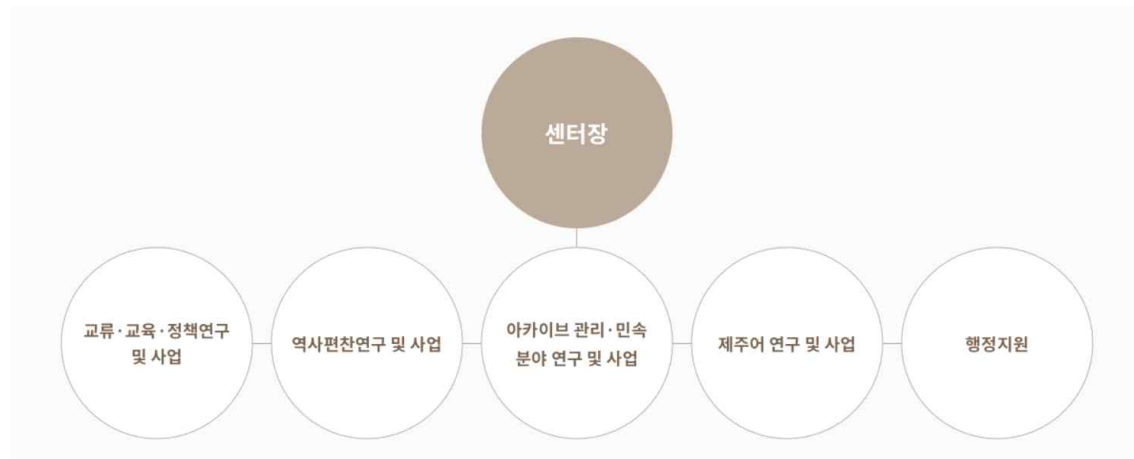
- 2010.10 제주연구원(옛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위탁 계약 체결
- 2011.08 제주학연구센터설립
- 2011.09 제1차 제주학연구센터운영기본계획 수립
- 201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업무 협약
- 2012.08 제주학아카이브 기본계획 수립, 제1회 제주학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3.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4.03 제주학아카이브 개설
- 2014.07 제5차 한국지역학포럼 개최
- 2015.03 제주학연구 외부공모 실시
- 2016.04 제1학 제주학정책포럼 개최
- 2016.07 제주학아카이브(구술사강좌) 운영
- 2017.03 제주어공모전
- 2017.07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구술사강좌 운영
- 2017.12 [제주학개론], [제주어구술자료집] 10권 발간
- 2018.03 탐라사국제학술대회
- 2019.04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

③ 제주학연구센터의 운영 원칙: 제주학연구센터는 “열린 제주학, 따뜻한 제주학, 실천하는 제주학”이라는 비전을 실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영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 1) 전국, 세계, 지역간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제주학 지향
- 2)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플랫폼 구축
- 3) 센터의 안정적 기반 구축
- 4) 시민을 향해 있는 제주학 지향

- ④ 조직 구조: 제주학연구센터는 센터장 밑에 교류·교육·정책 연구 및 사업, 역사편찬 연구 및 사업, 아카이브 관리·민속 분야 연구 및 사업, 제주어 연구 및 사업 등 4개 부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2명의 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림6> 제주학연구센터의 조직 구조



- ⑤ 주요 사업: 제주학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은 지역학 연구의 주요 사업을 모두 망라하고 있을 만큼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제주학 관련 방대한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요 사업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 2) 제주학 관련 연구지원 사업
- 3) 제주학총서 발간 및 지원 사업
- 4) 제주학총서 번역 출판 지원 사업
- 5) 제주학 교육사업
- 6) 제주어 연구사업
- 7)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 8)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및 정책연구
- 9) 제주학대회 개최
- 10) 제주학 역사편찬사업
- 11) 제주학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 ⑥ 특징: 제주학연구센터는 설립 10주년을 경과하면서 기관의 독립과 제주학진흥원으로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10월 7일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20주년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사례가 소개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범주에 따르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합적 연구라는 대학 연구기관식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고문서, 고전적 등 고문헌 자료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학이 집중해야 할 부문으로 역사문화, 신화, 언어, 생활문화, 민속 등의 분야에 대한 보다 집중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¹⁹⁾

3-5. 지역학 연구의 주체별·지역적 특성

1) 지역학 연구의 주체별 특징

- 지역학은 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성의 특징, 가용할 수 있는 연구역량과 자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연구 주체 및 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광역 지자체나 규모가 큰 기초 지자체는 대체로 지자체 출연 연구원 하에 지역학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학과 경기문화재단 산하에 지역학 연구소를 두고 있다.
- 지역학 연구 주체들 가운데, 대학 연구소들이 주로 학술적인 연구에 주력하는 반면, 지자체 출연 연구센터들은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지닌 연구과제들을 다수 수행하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문화원은 향토사연구 및 주로 자료의 축적과 아카이빙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연구센터 리더의 전공과도 연결된다. 지자체 연구원의 경우 사회문화 분야나 관광 분야 전공자들이 많은 반면, 대학 연구소의 경우에는 역사 분야나 인문사회 전공자가 많고, 지역의 문화원의 경우에는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추축이 되고 있음.

19) 제주학연구센터(2020),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 거제학의 경우, 연구의 주체가 아직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센터의 비전과 전망을 모색하는 작업과 더불어 연구역량 및 리더십을 구축하는 작업을 연계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지역학 연구의 지역적 특성

- 지역학에는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기후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다.
- 부산, 인천, 울산 등 근현대에 성장한 도시는 근대 이후의 시기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도시와 지역민이 겪은 시대적 사건들의 파급 효과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 부산은 한국전쟁과 임시수도로서의 피난시기의 상황, 인천은 근대화 시기 개항과 개항 이후 도시의 변화, 울산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따른 울산의 급속한 근대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과 인천은 항만과 연결된 역사문화, 울산은 석유화학공업의 역사문화와 연결된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전통시대부터 광역 단위의 구심 역할을 해온 도시들의 경우나 광역 지자체 단위의 지역학 연구는 상대적으로 근대 이전의 역사,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제주와 강원은 역사·문화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리, 생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제주와 강원 지역의 생태·지리적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 거제는 전통시대 영남지역의 주요 지역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조선산업의 발달로 인한 급속한 인구 유입 등 전통적 유산과 현대적 변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근대 거제의 사회경제적 변동이 거제학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제주와 마찬가지로 지리와 생태·환경이 거제학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3-6. 지역학 연구 관련 제도에 관한 검토

- 지역학 연구의 주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각 지역학의 진흥과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 내부에 존재하는 연구 및 교육역량의 분포와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및 교육사업들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의 여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역학 연구의 주

체를 확장·강화할 수 있다.

- 지역학의 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계 법률, 문화 관계 법률, 교육 관계 법률,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가 있다.

1) 행정 관계 법률

-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 연구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이 있다.
- 이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는데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제2조(정의))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법률은 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가 설립한 연구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표8> 지역학 연구 관련 법률 및 조례: 행정 관계 법률

구분	법률 및 조례	주요 내용
행정 관계 법률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10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은 거제시의 (가)거제학연구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데, 그것은 이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상위의 연구기관(예컨대, 경남연구원)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5년 2월에 「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를 펴낸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설립 및 관리 감독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도덕적 해이,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감사의 결과, “법령에 위반되게 무분별하게 설립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방만한 재정운용 및 불공정한 인사관리 등의 문제가 있었고, 출자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 가운데 연구원, 연구기관 관련 사항으로는 “화성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경기연구원 등 광역 지방연구원과 유사·동일한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었으며, “해외 우수연구소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각종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있었으며, “전주시 등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사 지방연구원을 [표4]와 같이 산하 기구 형태로 설립(전주시)하거나 관내 특정 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내 산하 기구 형태로 연구원을 설립(화성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한 후 시도 지방연구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표9> 감사원 보고서의 [표4]

구분	기관명	설립일	소재지	법인격	주요 업무	비고
전주시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2000. 4. 10.	전주시청 내	없음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론 및 자 료의 수집 분석 등 (조례 제2조)	전북발전연구원 ⁷⁾ 업무와 유사·동일
화성시	화성시 지역발전연구센터	2013. 1. 10.	- 대학교 내	없음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 등 (조례 제4조)	경기개발연구원 업무와 유사·동일
용인시	용인시 용인발전연구센터	2004. 12. 1.	☆☆대학교 내	없음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 등 (조례 제4조)	
김포시	김포발전연구소	1998. 9. 15.	- 대학교 내	없음	지역발전에 관한 주요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발전연구소	2008. 5. 20.	- 대학교 내	없음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조례 제4조)	부산발전연구원 ⁸⁾ 업무와 유사·동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1999. 8. 9.	- 대학교 내	없음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등 (조례 제4조)	
김해시	김해발전전략 연구원	1996. 3. 26.	- 대학교 내	없음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 책대안의 모색 등 (조례 제4조)	

- 기초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에 2000년에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 하였으나, 2015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조례’(2000년 3월 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론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북발전연구원 업무와 유사·동일”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15년 9월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 연구원 4명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4월에 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들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 명 이상 도시의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으나, 정부 방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²⁰⁾ 또한 감사원의 지적 이전부터 동 연구소의 연구원 자리가 대부분 공석이었고, 낮은 인건비로 인해서 응모자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도 동 연구소 및 운영조례 폐지의 이유가 되었다.

- 따라서 거제학연구기관의 설립에 있어서 경남연구원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특 색 있는 지역학 연구 거점의 위상과 비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2) 문화 및 교육 관계 법률

20) 『전북일보』, “전주 시정발전연구소 없앤다”, 2015.08.31.

- 거제학 진흥을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이용하거나 기존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학의 진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는 문화 관계 법률로서 지역문화진흥법(2014), 지방문화원진흥법(199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016)이 있으며, 교육 관계 법률로는 평생교육법(2007),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2007) 등이 있다.

<표10> 지역학 연구 관련 법률 및 조례: 문화 및 교육 관계 법률

구분	법률 및 조례	주요 내용
문화 관계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201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의2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제15조 문화도시의 지정 제18조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제19조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방문화원진흥법 (199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 등)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관계 법률 (교육부)	평생교육법 (2007)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 평생학습도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2007)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지역학 관련 지자체 조례

-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학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학연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례는 <표 8-3>과 같다.

<표11> 지역학 연구 관련 법률 및 조례: 지자체 조례

구분	법률 및 조례	주요 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2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의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강원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강원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강원도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도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강원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강원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강원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 조례 (2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부산의 지리학·역사학·사회학·문화학·정치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부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제4조(부산학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산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부산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산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부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부산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부산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산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산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산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산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학을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세종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세종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종학진흥사업) ① 시장은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종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세종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세종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4. 세종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 5.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세종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세종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세종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세종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주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시장은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 조례는 두 가지 형태로 제도화되고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지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이며, 두 번째 형태는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이다.
- ‘지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2013), 용인시(2016), 강원도(2017) 등이다. 이 종류의 조례는 지역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연구센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센터의 사업으로는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지역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지역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지역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지역어 관련 연구, 지역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사업, 지역사·지방사 편찬사업, 그 외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광역시(2017), 세종특별자치시(2019), 전주시(2021) 등이다. 이 유형의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연구기관이나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학이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여러 지역학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수장에게 지역학 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학 진흥계획의 추진과 지역학 사업들의 배분을 위해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학 사업으로는 지역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지역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지역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지역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 행사 지원, 지역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지역학 강좌 개설 및 운영,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역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적시하고 있다.
- 두 유형의 조례는 실제 수행하는 사업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차이는 지역학의 수행 주체의 측면에서 연구센터의 설립을 통한 방식을 택하는가, 아니면 지자체의 수장에게 지역학 진흥의 책임을 부과하는가에 있다. 거제시가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두 방식의 장단점과 거제시의 현황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구센터 설립 조례의 경우, 상위의 연구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책 수요 이외의 지역학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흥 조례의 경우에는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여러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지자체가 지역학 진흥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경우에 택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쪽이든 광역지자체나 대도시 규모에서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제시의 상황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거제학의 진흥을 위해서는 부족한 연구역량의 결집과 단기간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에 두고 지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3-7. 지역학 연구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

1) 연구 주체의 형성

- 지역학 연구는 다양한 연구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지만, 대표적인 주체로는 대학의 연구소와 지자체의 연구원을 꼽을 수 있다. 대학 연구소는 전문 연구자 확보에 유리하며, 지자체의 연구원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적 지원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거제시의 조건에서는 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이다.
- 거제학의 주도적인 연구 주체, 기관은 거제시의 재원으로 출자한 연구센터의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거제학 연구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센터들이 지역 연구원 산하에 건설되었다는 점에서 (가)거제학연구센터 설립에는 난점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제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위 연구기관인 경남연구원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인 연구 비전과 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거제학 연구 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외부 인력의 영입 및 내부 역량의 형성과 재생산이라는 양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부 인력의 영입은 거제 지역을 외부의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는 학술 이벤트 개최, 외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의 형성, 외부 연구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의 제공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 내부 연구역량의 형성과 재생산에는 거제의 기존 연구 역량의 결집과 재배치,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거제학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주도 기관의 설립 및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 주제의 선정과 거제학의 정립

- 거제학 연구에 관한 기존 성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거제학 정립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제의 '지역성'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계획의 수립과 기초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 거제의 지역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지리,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나, 현실적인 역량과 토대 형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선적인 영역을 먼저 선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거제 지역학 연구의 토대 형성을 위해서는 특히 거제의 역사, 사회·문화, 생태·지리 분야를 먼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중기적으로 정치, 경제, 예술 등의 분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4. 거제학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

- 거제학의 추진과 진흥을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거제의 지역성에 대한 해명 작업과 더불어서 현재 거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거제학의 비전과 연구 주제가 도출될 수 있다.
- 거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단기간에 충분히 연구하기 어려운 방대한 내용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거제의 인구변동과 산업의 변화 및 거제의 인문사회적 토대를 중심으로 현실 변화의 추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4-1. 거제의 현황

1) 인구 증감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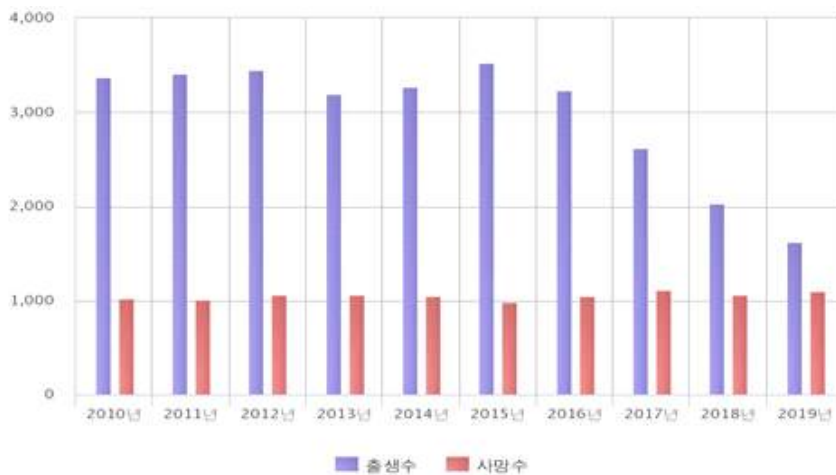
- 거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257,183명으로 최고 정점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대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표12> 거제시의 세대수와 인구의 변동

연도별	세대수	인구			인구증가율
		계	남성	여성	
2011년	88,629	232,787	121,587	111,200	1.9
2012년	90,793	236,944	124,076	112,868	1.8
2013년	93,572	242,077	127,020	115,057	2.2
2014년	97,392	248,287	130,708	117,579	2.6
2015년	101,534	255,828	135,281	120,547	3.0
2016년	102,413	257,183	135,738	121,445	0.5
2017년	101,279	254,073	133,467	120,606	-1.4
2018년	100,775	250,516	131,003	119,513	-1.4
2019년	101,969	248,276	130,141	118,135	-0.9
2020년	103,779	245,754	128,978	116,776	-1.02

- 출생·사망 변동: 위와 같은 인구 감소는 출생자 수의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출생자 수는 2016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섰다. 이에 반해 사망자 수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그림7> 거제시의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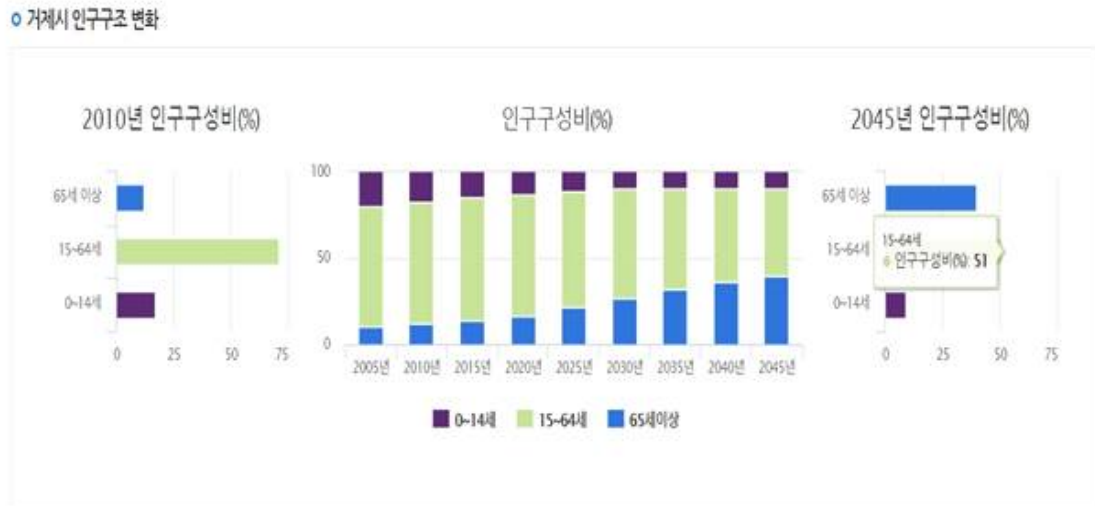
- 면·동의 출생 변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에서 면·동의 추이를 보면 삼성중공업(고현·장평·상문동), 대우조선(옥포1·2동·아주·능포·장승포동) 등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1인 가구 변화: 2016년 이후 인구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2019년 거제시 1인 가구수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밀집 지역인 고현, 장평, 아주, 옥포2동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2) 인구 구성의 변화와 노령화

- 노령인구 변동 : 2010년과 2019년 사이 노령화 지수를 보면 남부(868.2), 장목(750.2), 둔덕(748.8), 동부(730), 하청(342), 거제(283.2)면 순으로 높았다. 아주(14), 상문(14.4), 수양(17.5), 장평(38.3), 고현(43.5), 옥포2동(46.6) 등이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 인구구조 변화에서 보면 전국과 경남도 인구구성비에서 2025년에 경남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거제시의 고령화 지수는 2000년 84, 2005년 121.1, 2010년 171.5, 2015년 42, 2019년 56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현재는 65세 이상보다 15-64세 인구가 많지만, 2045년이 되면 15-64세 인구가 51%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8> 거제시 인구구조의 변화



3) 거제 내부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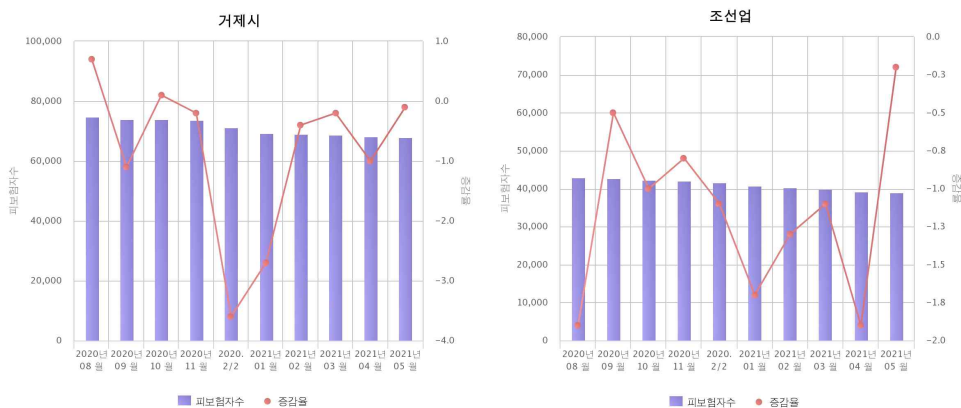
- 거제는 경상남도의 타 시군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가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조선산업이 입지하고 있어서 생산 연령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왔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령화 추세를 벗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또한 시 내부에서 인구밀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거제시는 2016년 이후 고용위기특별지역에 지정되었는데, 조선산업의 위기는 실업자의 증가와 젊은 세대의 유입을 가로막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거제 내부에서 지속적인 인구 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거제 내부의 지역별로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이전 면 지역의 거주자들이 고현, 상문, 장평 등지의 아파트 단지로 내부 이동을 함에 따라 면내의 인구감소를 이끌었다.
- 면 지역 중에서 남부면은 자연경관과 각종 멸종·보호식물의 寶庫이지만 인구절벽의 소멸위험지역으로 매년 세대와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 그 외 지역인 하청, 동부, 장목면은 인근한 면·동 지역으로 인구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동부면의 노자산은 1000여 종의 식물과 5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대흥란, 긴꼬리딱새, 거제외줄달팽이)와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법종보호종만 50여 종에 달하는 자연의 보고이다. 하지만 최

근 민자 4152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골프장 27홀·water park·extreme 스포츠·해양레포츠 체험장·콘도·연수원·호텔·생태환경 체험장)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4) 산업 분야²¹⁾

- 조선업 고용위기 지역 지정 : 2016년 6월 30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8년 5월 29일에는 거제시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2016년 1월 거제 피보험자는 106,000명에서 2018년 1월 73,000명으로 2년간 약 3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는 2018년 대비 37.6% 증가했는데 조선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분야에서 증가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거제시 전체 피보험자 증감율은 2020년 2월 -3.6과 2021년 1월 -2.7로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 -1.0으로 전월 대비 -1.9%로 큰 폭이었다. 이러한 증감율은 조선업과 무관하지 않은데, 조선업 재취업률은 2017년 43.6%로 2015년에 비해 31.5% 감소했다.

<그림9> 거제시와 조선업의 피보험자수 증감 추이



- 또한 2019년 1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현물추장 방식으로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3월 본 계약 이후 2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은 해외 기업결합 심사 지연과 지역의 매각

21) 이상호·이상혁·이나경·오윤석, 『지역-산업 고용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 조선업을 중심으로 -』, 한국고용정보원, 2020. 12. 31, 34~44쪽 참조.

및 합병 반대운동의 지속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합병 등의 장기간 표류 속에서 거제는 최대 4-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떠나고 조선업의 인적 구조조정 불안감과 지역경제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 <표13>은 2012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우와 삼성 양대 조선소의 직영과 협력사 노동자 현황이다. 2012-15년까지 4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 감소하다가 2018년 급격하게 감소했다. 감소는 협력사 노동자들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삼성중공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표13>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고용 노동자수 추이

(단위: 명)

구분	계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계	직영	협력사	계	직영	협력사	계	직영	협력사
2012	65,554	24,493	41,061	36,399	12,799	23,600	29,155	11,694	17,461
2013	69,033	25,104	43,929	38,874	13,023	25,851	30,159	12,081	18,078
2014	74,673	26,440	48,233	40,018	13,701	26,317	34,655	12,739	21,916
2015	81,035	26,905	54,130	44,069	13,540	30,529	36,966	13,365	23,601
2016	73,678	22,618	51,060	35,050	11,137	23,913	38,628	11,481	27,147
2017	50,839	19,951	30,888	27,692	10,144	17,548	23,147	9,807	13,340
2018	47,512	19,297	28,215	26,927	9,797	17,130	20,585	9,500	11,085
2019	53,944	18,809	35,135	26,183	9,461	16,722	27,761	9,348	18,413
2020-11	46,868	18,329	28,539	21,254	9,013	12,241	25,614	9,316	16,298

5) 인문사회적 토대

- 문화시설: 2013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거제시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 4개소, 교육청 1개소 등 모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박물관 6개소 중 국공립 2개소, 사립 4개소, 문예회관(지역문화재단)과 문화원 각각 1개소를 운영 중이고 거제식물원이 있다. 공연장은 4개소, 영화관 3개소(스크린 14개), 문화복지 시설은 3개소(복지회관 2개소·청소년회관 1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10> 거제도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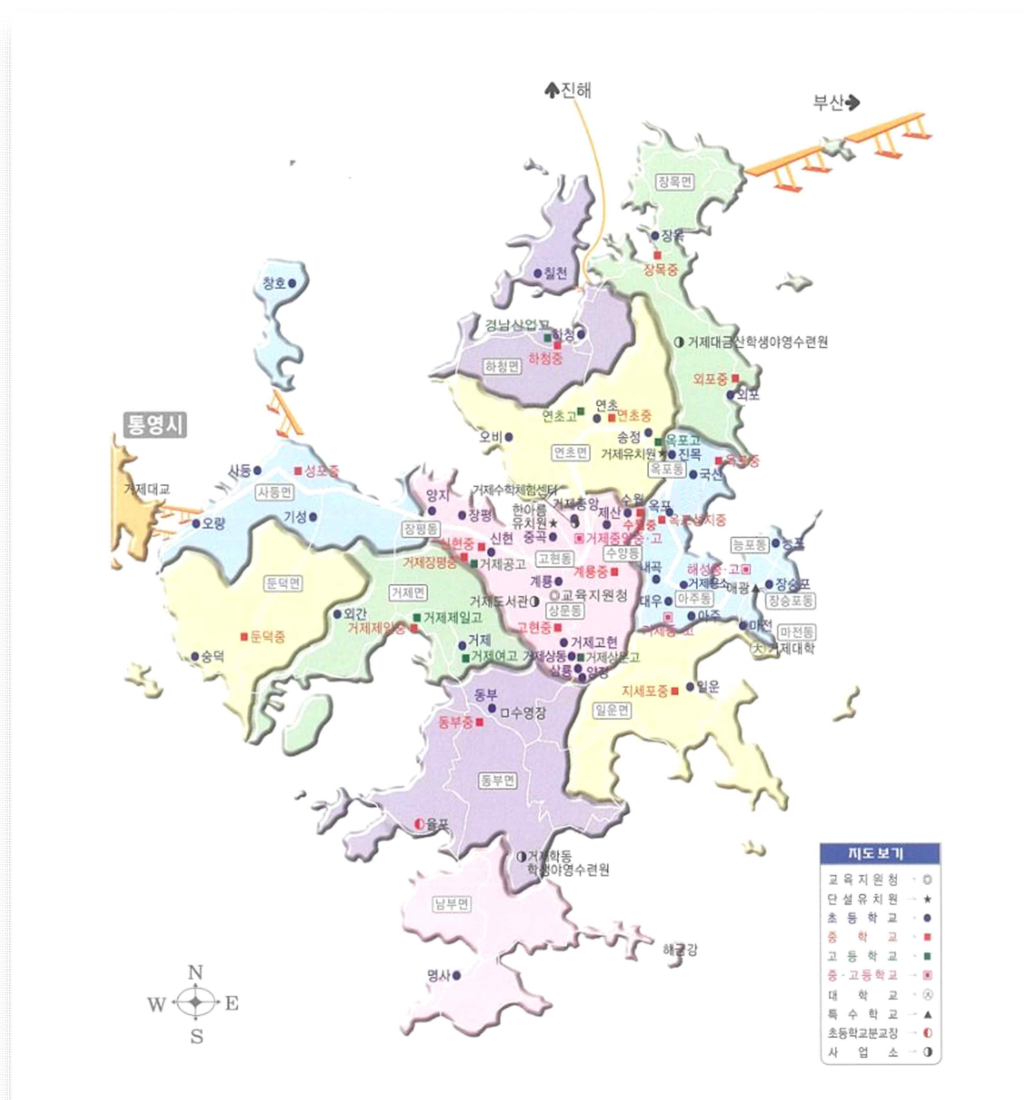
- 2020년 공공도서관은 지자체 5개소, 교육청 1개소. 등록박물관은 공립 2개소(거제어촌민속전시관, 청마기념관), 사립 5개소(거제민속박물관, 거제박물관, 외도조경식물원,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등이 있다. 미술관은 양달석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는 <양달석 미술관(사등면 성내마을회관 2층·2021.6)>이 있다. 문예회관과 문화원은 변동이 없다.
- 2024년 거제시립박물관(둔덕면 방하리·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비 96억원)이 개관될 예정이다.

<그림11> 거제조선해양문화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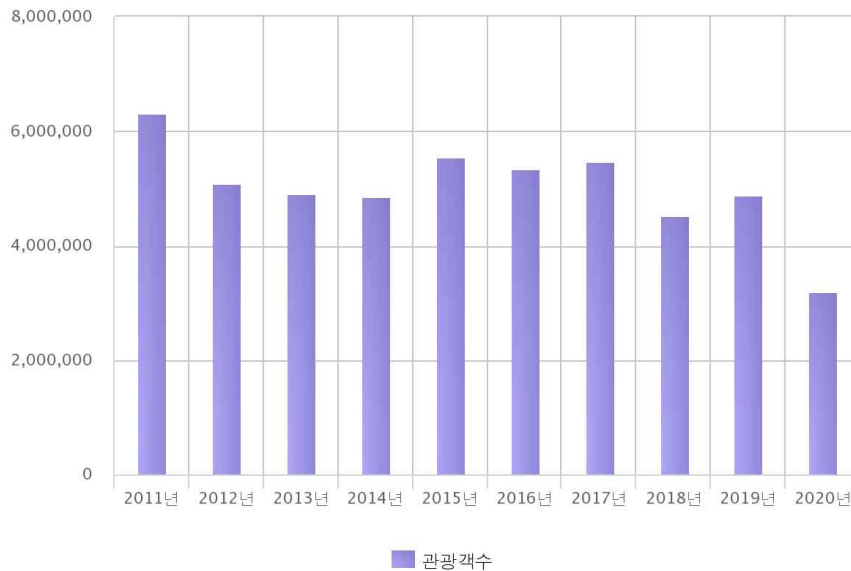
- 교육기관: 2019년 69개교(대학 1·고교 10·중학교 19·초등 38·특수 1)인데 초중고가 고현·옥포·장승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밀집지역(고현·수월·장평·옥포·아주·장승포)에 편중되어 있다.

<그림12> 2021년 거제시 교육기관 현황



- 관광객 유입 현황 : 2011년 600만 명에서 코로나19 직전 2019년에 400만 명대로 감소하였고, 2020년 3,185,881명(내국인 3,182,767명·외국인 3,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13> 거제시 관광객수 추이



6) 거제 역사 편찬

- 지역사 편찬: 거제시지(2002), 읍면동지(신협읍·둔덕·하청·장목·연초·사등·동부·일운면, 아주·장승포·조라, 1999-2018 총 11권) 편찬 사업이 진행되었고, 거제고 문헌총서(2016, 거제지리지집성·편년체집성·정사집성·승정원일기·전객사일기·일성록·총6권), 거제근현대문헌총서(2017, 대한제국·일제강점기·한국전쟁·총7권), 거제대마도유구(2018, 1권), 곡구집(2016) 등이 있다.
- 구전 채록: 구전설화·전설, 거제지명총람, 거제문화(하청 칠천도·사등 가조도·거제 산달도·장목 이수도/황덕도·일운 내도 외도 저도 지심도·남부 다대와 일운 예구 마을, 2002-2013, 7권) 등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편찬한 자료가 있다.
- 민요 채록: 거제민요집, 팔랑개 어장놀이 등은 1990년대 편찬되었다.
- 문화재 발굴조사: 거제둔덕기성과 옥산금성 등 국가사적지(거제시), 일제강점기 근대 군사시설 조사(시의회), 최근 거제 지역 28곳 성곽 발굴 관심도 높아졌다. 고인돌 및 고분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지표조사(1990년대 이후 없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 금석문 조사: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 거제근현대사 : 『거제이야기 100선』이 유일하다.
- 거제지역 독립운동 및 사회운동 연구 : 논문 1편이 존재한다.

- 문제점과 한계 : 민요, 전설, 지명 등은 고령자가 줄어들고 있어 추가 채록이 시급하다. 지역사 연구와 집필 출판은 거제시의 기존 연구 역량을 모아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거제문화원에서 해 왔던 작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 거제문화원 거제향토사연구소: 2000년 문화원 부설 <거제향토사연구회>로 설립되었고 2002년 지금과 동일한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역 내 원로와 향토사학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02년부터 거제 섬문화 시리즈 7권과 거제고문헌총서와 거제근현대문헌총서 등을 편찬해 지역사의 연구에 기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령화된 향토사학자 외에 신진 연구자가 부족해 각종 편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거제역사문화연구소: 2019년 8월 설립한 신생단체로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에서 활동하던 4명을 포함해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우리가 사는 거제’라는 주제로 지역사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 대학 연구소와의 연결 부족: 현 거제대학은 조직 구성에서 인문학 토대 부족하며, 따라서 거제 외부 지역의 거제 지역사 연구자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7) 문화 분야

- 거제오광대의 전승 문제: 가사와 역사성 고증 문제가 존재한다.
- 거제민요 채록은 전승자를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거제구전전설·설화 부문은 채록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제지명총람: 재조사가 필요하며 고전 사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환경 분야에서 남부면 남부관광단지 조성문제가 존재한다. 거제시는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콘텐츠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은 부족한 편이다.

8) 문화재 지정 현황²²⁾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 거제현 관아, 거제 둔덕기성
- 명승 : 거제 해금강
- 천연기념물 : 거제 연안 아비도래지, 거제 학동리 동백나무 숲 및 팔색조 번식지

22) 거제 지역의 문화재 지정 현황은 <부록1>을 참조.

- 경상남도 문화재 : 유형문화재 6개소, 기념물 28개소, 문화재자료 8개소
- 국가등록문화재 :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거제초등학교 본관
- 이슈 : 거제 고현동사무소(구 거제군청(1956) 석조) 신축(주차장 확보) 관련해 시와 주민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2007년 문화재청에서 국가등록문화재 가능성 높다고 평가했다.

4-2. 거제의 현황 종합

- 거제는 지역의 다른 중소 지자체에 비해 인구 감소, 노령화 및 지방소멸 위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또한 인구 구성의 측면에서 거제시 내의 지역적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조선산업 발전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어 온 거제시의 발전 독특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제시의 조선업은 서서히 경기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조선업의 특성상 미래에도 세계 경제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거제시의 조선업은 거제의 근대적인 발전에서 주요 동력으로 공헌해 왔으나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과 불황을 고려할 때 산업의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근대화는 거제 역사·문화의 해체와 소멸, 거제 내부의 지역적 격차의 확대, 생태환경의 파괴 등을 동반했다. 따라서 21세기 거제시의 미래 비전과 거제학의 비전은 해체되어 온 거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발굴과 회복, 생태환경의 보호와 이를 통한 먹거리 생산을 중요한 과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하지만 거제의 인문사회적 토대는 타 중소도시나 지자체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극복할 문제이나, 거제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인문사회적 콘텐츠를 확충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
- 거제를 포함한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근대화 이후 제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3년 이후 매년 1%대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감소세에 있다.
- 거제시의 경우 장기간 이어진 조선산업의 불황 여파로 201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고, 인구도 2016년 이후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과거 거제시는 지역경제의 70% 이상을 조선업에 의존했으나, 조선업 고용 인구도 2015년 9만 2천 명에서 2018년 5만1천 명으로 급감했다.
- 이와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동남권 개발 프로젝트가 모색되면서 개발

이슈가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의 움직임과 달리, 거제 내부에서의 인구 이동과 인구감소에 따른 구도심권의 쇠퇴, 비도시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모색되는 거제학은 역사·인문학적 자원을 발굴하고 이 융합으로써 거제사회의 통합력과 정체성-주체성을 확보하고, 지리생태적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거제가 구비해야 할 경쟁력의 소프트파워 구축, 특색있는 콘텐츠 생산의 기반을 형성·확장해야 할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4-3. 거제의 미래비전 논쟁과 거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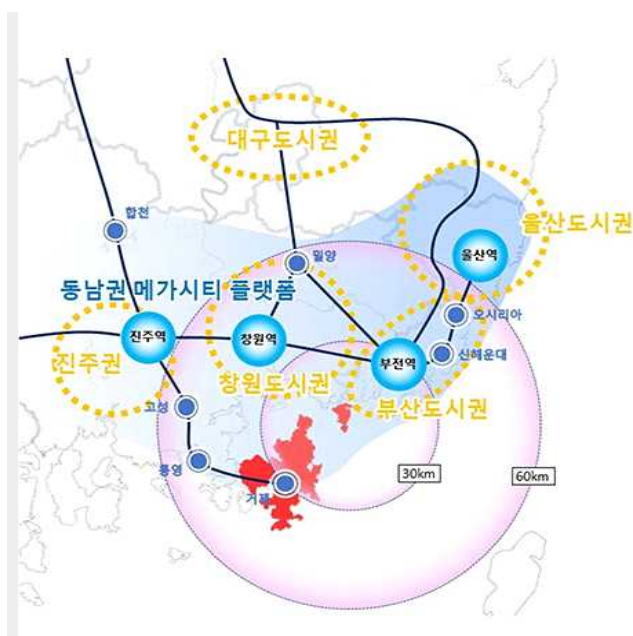
1) 거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논쟁

-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확정하였고, 17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 이에 따라 거제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제시 발전전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2021년 4월 13일에 개최된 ‘거제발전전략 정책토론회’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영두 BNK 경제연구원장은 “동남권과 거제시의 향후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2013년 이후 동남권의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거제에는 바닷길이 있고 철길이 생기며 이제는 하늘길까지 열리게 되는 것으로,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천금같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거제의 발전전략으로 미래형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연계 발전 모색, 공항복합도시 개발 참여, 남해안권 협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²³⁾
- ①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전략으로 자율주행 스마트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첨단기업 유치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로봇, 3D 프린팅 기술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②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발전’ 방안으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부산신항-거제 연결선, 거제-마산 국도 5호선(해상구간) 등을 통해 거제시 광역교통망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③ ‘공항복합도시로의 도약’

23) 『거제시민뉴스』, “기획연재④ 가덕도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4.27.

을 위한 역사 주변 개발 필요성도 제시했다.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전시·컨벤션, 관광·숙박, 상업·업무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제조업 인프라 및 천혜의 자연환경, 역사 자원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공항복합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뿐만 아니라 남부권 관광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남해안권 협력 강화’ 방안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남과 전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관광이 동반 성장하는 남해안 광역 경제권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²⁴⁾

<그림14>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구상²⁵⁾



2) ‘조선도시’에서 ‘공항도시’로?

- 위 정책토론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및 메가시티 구상을 배경으로, 거제를 ‘조선도시’에서 ‘공항도시’로 전환하자는 구상도 제기되었다. 원두환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항공교통의 대중화와 공항 기능 변화에 맞춰 거제시가 공항도시로서의 기능과 규모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의 공항주변 배후도시들의 사례를 토대로 공항과 도시가 서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공항과 거제시가 함께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24) 『거제시민뉴스』, “기획연재① 가덕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4.27.

25) 『거제뉴스광장』, “기획연재③ 가덕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5.12.

- 위 발표에 따르면, 공항이 항공산업의 성장, 지역의 접근성 향상, 물류산업 성장이라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의 발달, 공항 의존형 서비스업 성장, 국제적인 인적교류와 국제비즈니스 활성화, 인구 증가 등 간접적인 효과에서도 거제시 지역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또한 공항도시의 모델과 관련하여, 공항 산업을 보조하기 위한 물류단지 개념의 공항클러스터, 버스 등 내부 순환도로망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중심상권 지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도시(Airport City)’, 공항반경 20km 이내에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해 항공 및 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과 주거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 공항과 공항기반도시 사이의 테마화된 도시인 ‘공항회랑(Airport Corridor)’이라는 다양한 공항도시 개념 중에서 거제시가 어느 단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제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의 교통기반 시설을 통한 ‘공항기반도시(Aerotropolis)’가 가장 이상적인 공항도시 모델이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서는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로 제한을 두고 있어, 거제시가 주변 개발예정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²⁶⁾
- 공항도시 모델은 거제의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거제시의 여러 지역적 상황에 맞는 권역별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따라 <그림15>처럼 거제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거제시의 북부권은 공항 인프라를 이용한 공항도시로 개발하여 창원권과 연계를 통한 물류단지로서의 개발을, 시청과 동·중부권은 조선업과 주요시설 이관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써의 역할, 남부권은 관광 인프라를 확대한 친환경 경제구역으로 관광과 컨벤션산업의 연계, 서부권은 통영 및 서부경남지역 교류 통로로써 항공산업 육성 및 R&D단지 조성 등이 제안되었다.

<그림15> 거제시의 5개 권역별 발전전략²⁷⁾

26) 『뉴스앤거제』, “기획연재② 공항도시로서의 거제시의 발전 방향”, 2021.05.12.

27) 『거제뉴스광장』, “기획연재③ 가덕도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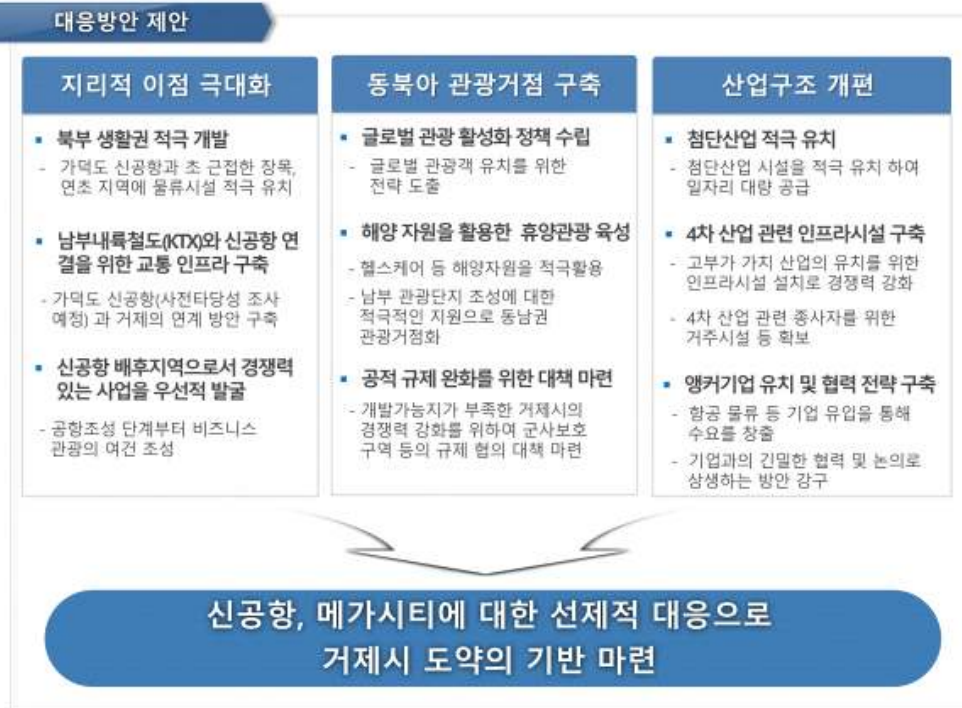


3) 공항도시-메가시티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 위 정책토론회에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섰던 동의대학교 윤상복 교수는 거제시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는 가덕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공항 건설은 복합물류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고, 메가시티 조성은 부울경 관광산업의 허브로서 거제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거제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생산업의 수요에 대응한 물류플랫폼의 거점이자, 동남권 메가시티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진 도시라면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 동력산업들을 강화해 나간다면 인구증가는 물론 산업의 발전, 발달을 급속하게 가져올 것이라고 부언했다.²⁸⁾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16>처럼 향후 거제시의 대응 전략으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극대화하는 방안, 동북아 관광거점을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난 사업 다각화 전략 등 3가지를 제시했다.

28) 『거제뉴스광장』, “기획연재③ 가덕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5.12.

<그림16> 신공항, 메가시티에 대한 거제시의 대응방안



- 위와 같은 연구와 제안들은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즉, 동남권 경제와 조선산업의 침체에 따른 거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철도, 항만, 공항을 모두 갖추으로써 동남권 광역교통망의 중심도시이자 공항배후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으로 미래 거제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공항도시의 일부 기능을 가져옴으로써 연계 될 이익에 주목하면서, 거제의 경제산업적 기회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 그러나 메가시티-공항도시 구상이 기회의 조건만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과 김해에 이미 마련된 인프라와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할 때, 거제와 가덕도 사이의 교통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항도시의 주요 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신공항과 경남·호남 지역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공항도시의 일부 기능을 가져올 가능성은 존재한다.
- 거제시의 근대화와 발전 경험을 돌아볼 때, 과거 국가 주도의 거대 개발프로젝트들이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거나 생활환경을

파괴했던 부정적 측면, 그리고 거제의 근대화 과정에서 지역 내 격차가 증가해 온 경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거제를 둘러싼 (미래)환경의 변화는 거제학의 전망과 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거제학은 변동의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거제의 가치를 발굴 재조명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재창조함으로써, 거제의 정체성을 풍부히 하고 거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거제의 미래 비전 모색과 거제학의 정립 과정에서 거제가 남도의 섬으로서 축적해 온 역사와 문화, 생태·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0년 6월에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거제는 고성, 통영, 창원과 더불어 부산권과 연계된 ‘도심해양권’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0년의 발전종합계획에서 거제의 위상 변화는 신공항 건설이라는 환경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거제는 이전의 종합발전계획에서는 하동에서 거제로 이어지는 ‘한려수도권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것은 거제가 남도의 섬으로서 지니고 있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고려한 것이었다.
- 요컨대, 거제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에서 거제가 지닌 양면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한려수도권의 섬문화에 대한 연구를 거제학 연구의 일부로 가져올 필요성을 정부의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7> 2020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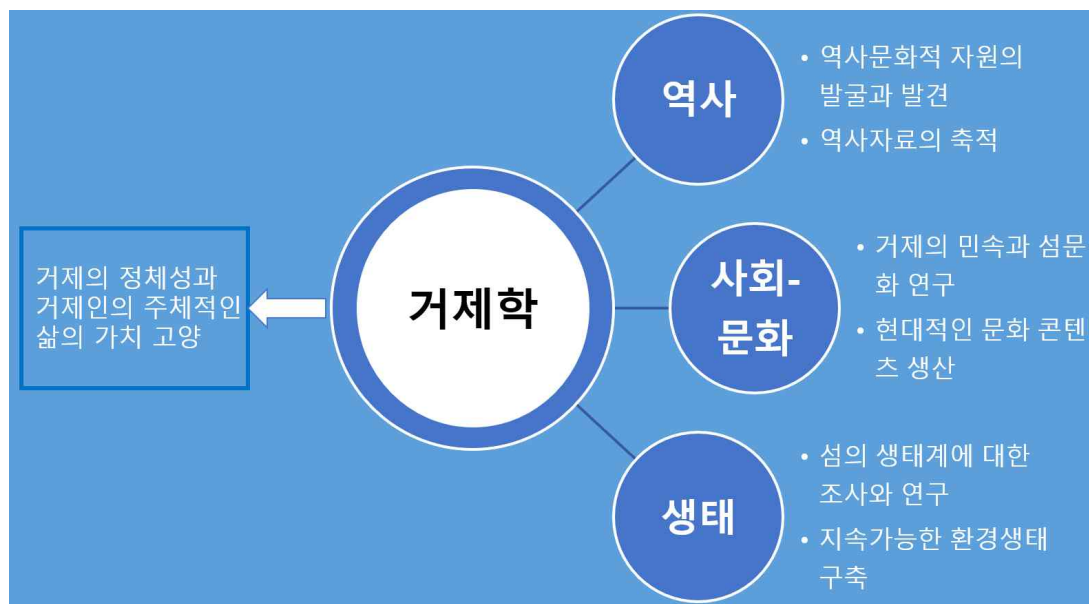
- <그림1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남권 남해안의 관광자원은 부산 지역과 하

- 포로수용소를 비롯한 역사적 자원, 해금강을 비롯한 생태환경자원은 외부에서 거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원천이자 거제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 따라서 거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도심해양권과 남도문화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제학의 정립이 필요하다.

4-4. 거제학 정립을 위한 기초 과제

- 거제학은 거제의 지역성에 관한 전문적·종합적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거제의 지역성에 관한 연구는 지역성과 정체성 해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거제의 지리적 조건과 보유 자원을 고려할 때, 거제의 환경·생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19> 거제학의 구성 요소



1) 역사 분야

- 역사 분야 연구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문헌과 문화재를 중심으로 발굴과 활용을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를 목표로 한다.
- 현재 확인되는 거제 역사 연구는 매우 소략하면서도 제한적이다. 이것은 전근대의 거제가 경상남도 지역에 속하거나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 역사가 짧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현대의 거제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 현재까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검색 가능한 거제 관련 기록물은 총 851건이 확인된다(부록1 참조). 이 가운데 연구논저 36건, 외교 기록 등

의 문서 48건,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 등 편년자료 121건, 연속간행물 476건 등이 확인된다.

- 연구논저의 경우 현대 15건, 근대 3건, 조선시대 13건으로 분류된다. 연구논저를 중심으로 거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전근대의 경우 조선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현대사 연구도 한국전쟁과 포로수용소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해외 자료에 근거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 고대사의 경우, 독로국 위치 비정 등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고학적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지표 채집을 포함하여 시굴·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전문기관을 동원하여 거제의 고대 역사가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역사 연구의 축적을 토대로 하여 역사문화콘텐츠의 발굴로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사회·문화 분야

-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전통시대의 민속문화를 복원하고 근현대의 사회·생활사를 조사·연구·기록·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통 문화와 관련하여 거제오광대의 고증과 전승, 민요의 채록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또한 거제의 근현대 문화상을 복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제의 시민사회단체 및 역사교사단체, 문화예술 분야의 단체나 활동가들과 연계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거제의 생활민속의 경우에도 해양자원이나 어로 활동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거제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거제의 역사문화상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남도의 섬문화, 특히 동남권의 섬문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서남권의 섬문화에 대해서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장기간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동남권 지역에는 섬문화 연구에 전문화된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여러 지역의 섬문화연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강화-진도-완도-제주-남해-거제를 연결하는 섬 중심의 문화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확보하기에 용

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 거제 근현대의 사회사·생활사·경제사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거제도 농어촌 지역의 근대 생활사와 양식업을 비롯한 경제사 역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발전 이후의 생활경제사 역시 조사와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근현대의 사회사·생활사·경제사에 관한 연구는 마을 단위의 미시사·마을사 연구와 집필뿐만 아니라, 경남의 다른 지역과의 관계사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의 부분은 거제문화원을 비롯한 기존의 향토사 연구자들과 분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3) 생태(환경·지리) 분야

- 거제는 해금강, 바람의 언덕, 외도 보타니아 등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이 찾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존재하지만, 거제의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 동부면의 노자산은 1000여 종의 식물과 5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대흥란, 긴꼬리딱새, 거제외줄달팽이)와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법정 보호종만 50여 종에 달하는 자연의 보고이므로, 이를 생태콘텐츠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따라서 지자체, 환경운동단체, (가)거제학연구센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의 협력체계를 통해 거제를 중심으로 한 섬의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자료의 축적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생태·환경·지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해 가면서, 거제의 생태환경에 대한 보존과 활용의 비전을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생태해양도시(Ecological Maritime City)의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보존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에코 그라운드(난개발이 없는 자연보호구역)를 설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거제의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려해상 생태계를 세계자연유산급의 보고로 설정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고, 이를 위해서 박물학적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 (가)거제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거제의 동식물과 지리, 숲과 습지, 해안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자료발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태계 연구를 역사문화 연구와 결합하여 생태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5.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발전 방안

5-1.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의 기본 방향

- 현재 거제의 여러 여건들을 종합할 때, 거제학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지원을 통해 (가)거제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1)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의 구축하고, 2) 시민사회 내에서 거제학에 대한 지지와 저변의 확대가 필요하다.
-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의 구축에는 1) 시의회, 거제시 내외부의 연구자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 기구로서 (가)거제학포럼을 결성하여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가)거제학 연구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 시민사회 내에서 거제학 진흥을 위한 지지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1) 학생, 교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저변 확대 프로그램 추진, 2) 이를 위한 지역 언론과의 협력, 3) 거제시 내부의 연구역량의 결집과 거제시 외부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과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거제학 연구역량과 대중적 토대는 타 지역의 상황과 비교하여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장하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업이다. 특히 거제 내부에 거제학 연구를 담당할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연구역량의 양성과 재생산 문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거제 외부의 연구자들에게 거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거제학의 대중적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2.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로드맵

-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로드맵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로드맵은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준비기(2022년)는 1년의 기간 동안 (가)거제학포럼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등의 제도를 구축하고 시기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와 제도 구축은 거제학 진흥과 발전의 첫 단계이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러 여건상 2022년에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설립기의 첫해인 2023년까지 포함할 수 있다.
- 설립기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의 기간이며, 1~2년의 준비기를 거쳐 설립된 거제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거제시 내외부의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센터의 네 가지 기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대사업과 역사, 사회문화, 환경생태 분야의 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또한 거제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거제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도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초기에 거제학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14>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로드맵

2021	준비기 2022	2023	설립기 2024	2025	2026	발전기 2027	2028	2029	2030	안정기 2031	2032
로드맵 설정											
제도 구축											
거버넌스 형성											
내부 네트워킹											
외부 네트워킹											
아카이브 구축											
거제학 토대사업											
거제학 연구사업											
거제학 협력사업											
거제학 도약사업											

- 발전기는 준비·설립기 4년 이후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의 시기이며, 거제학 토대사업과 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나가면서 거제 내외의 연구기관, 연구단체들과의 협력사업, 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이다.
-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직후부터 거제 내외의 연구기관들이 소장한 자료의 조사와 디지털화를 시작해야하며, 발전기에는 설립기에 시작했던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체계화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 안정기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4년의 시기이며,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이후 10년을 경과하면서 끝나게 된다. 이 시기에는 토대사업, 연구사업,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속하고 아카이브 운용도 안정화해야 한다.
- 또한 10년의 기간 동안 거제학연구센터의 독립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특히 안정기에는 거제학 진흥과 발전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거제학연구센터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5-3. 제도 구축: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거제학의 진흥을 위해서는 거제시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학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부산광역시(2017), 세종특별자치시(2019), 전주시(2021)가 택하고 있는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 방식과 제주특별자치도(2013), 용인시(2016), 강원도(2017)가 택하고 있는 ‘지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방식이다.

1)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 방식

- 전주시는 2000년 3월에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하였으나,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시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이론 및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의 업무가 “전북발전연구원 업무와 유사·동일”한 것으로 지적되어 2015년 9월에 동 조례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낮은 인건비로 인해 동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연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동 조례와 연구소 폐지의 이유가 되었다.
- 이에 전주시는 2021년 5월에 10명의 시의원의 발의(김남규 의원 대표 발의)로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6월 9일 공포·시행되었다(전주시 조례 제3778호). 발의의 이유로는 “최근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이에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별 지역 특성과 가치를 취합하고 연구하며 재정립하기 위한 지역학이 미래상 구현 및 지역발전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정신과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전주학을 진흥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전주 시민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이 제시되었다.²⁹⁾

- 전주시의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하고 있는 관계 법령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10> 참조). 이러한 규정은 지자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거제시의 경우에도 동 법률을 근거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지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방식

- 두 번째 방식인 ‘지역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학연구센터를 꼽을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선5기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2011년 10월 11일 제주발전연구원 부설연구기관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직의 확장과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와 제주학 관련 단체들의 논의를 토대로 2013년 월 일에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 2013년 2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적 거점으로써 제주도 위상 정립과 제주지역의

29)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남규 의원 대표 발의)”, 2021.05.04.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3일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며, 동 조례안은 5월 20일에 진행된 제381회 전주시의회(임사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출된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전주시의회 회의록(<https://council.jeonju.go.kr>)을 참조할 수 있다. 동 검토보고서는 <부록3>에 첨부되어 있다.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 연구 확산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함”과 더불어 “제주학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체계 정립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이 제시되었다.³⁰⁾

- 동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제시되었다. 지방연구원법 제4조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에 관한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학연구센터의 상위 기관이던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었다.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관한 논의는 2013년 2월 21일에 열린 제 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되었다.³¹⁾ 이 자리에서는 우선 동 조례의 제정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때에도

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013.02.21. 이 조례안은 2021년 2월 21일 제 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이 논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참조 (<http://record.council.jeu.kr/CLRecords/Retrieval2/index.php?hfile=9C9010303031.html&daesu=9#angun1>).

31)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 참조. <http://record.council.jeu.kr/CLRecords/Retrieval2/index.php?hfile=9C9010303031.html&daesu=9#angun1>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 내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조직 내에 둘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조직 내에 둘 경우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³²⁾ 이 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견이며, 따라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제주학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제주학의 정립과 진흥을 위해 제주대학교 및 동 대학의 탐라문화연구원이 오랫동안 연구와 자료를 축적해 온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때, 대학을 비롯한 기존 연기기관들을 중심으로 제주학 진흥을 추진하거나 제주학연구센터의 역할을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자는 의견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집중과 아카이브의 구축, 연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다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에 과도기적으로 두면서 장기적으로 연구센터의 독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주학연구센터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당시의 논란은 주로 제주학 연구기관들이 다수 활동해 오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³³⁾ 하지만 거제에서는 거제학 연구기관이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역할 조정의 문제는 크지 않다. 반면,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도의회가 감독하는 상황에서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학연구센터 사이의 역할 조정 문제 역시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학 진흥과 관련하여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독립한다는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 역시 큰 논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것은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비교적 작은 규모의 특별자치도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범위가 제주도 전역을 포괄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거제의 경우에는 상위의 기관인 경남연구원이 경상남도 규모에서 존재하고, 거제학연구센터는 거제시 단위에서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역할 조정을 경남도의회나 거제시의회가 독자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 조례 제정과 연구센터 설립시에 이와 같은 사정을 면

32) 그밖에도 ‘탐라’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정의가 이전의 제주지역학을 포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33)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3년 조례 제정 당시 제주학 연구기관은 47~49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의 목적과 범위

- 조례 제정의 목적은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의 목적은 거제학연구센터의 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사업 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라는 이름은 조례 추진의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거제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역사, 사회문화, 환경생태 등 세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거제 시민사회 내에서 거제학의 진흥과 발전에 대한 지지와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자의 문제는 거제 내부의 의욕과 열정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연구인력 확보 문제는 곧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예산 배정을 통해 거제학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할 (가)거제학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1) 거제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거제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거제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거제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거제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6) 거제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거제시사 편찬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거제학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5-4. 거버넌스 구축: (가)거제학포럼 운영

-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1)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2) 시민사회 내에서 거제학 연구와 진흥에 관한 관심과 저변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업을 담당할 거버넌스 조직이자, 공론장으로서 (가)거제학포럼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거제학포럼에는 관심있는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기존 연구기관, 거제시 내외의 거제학 연구자, 관심있는 시민사회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가)거제학포럼은 2022년 초에 구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2022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이후에는 발전적으로 해

소한다.

- (가)거제학포럼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과 과업으로는 1) 거제학 진흥에 뜻이 있는 집단과 개인들의 결집의 틀, 2) 거제학의 정립에 관한 기초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역할, 3) 거제학 관련 연구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술장의 역할, 4) 시민사회 속에서 거제학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행(거제학연구센터 설립 이전의 시기), 5) (가)거제학연구센터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5-5. 거제학 네트워크 구축

1) 거제 내부 기관들과의 협력과 분업

- 거제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거제시의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협력과 분업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연구 역량의 효율적 결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과 MOU체결을 통해 자료의 공유 및 협력적인 시민교양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거제문화원, 거제향토문화연구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 기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거제학의 토대를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업 및 협력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거제대학 내에 거제학협동과정을 설립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표15> 거제 내부의 거제학 관련 기관의 분업과 협력 관계

거제학연구센터	거제문화원	거제시립박물관	민간단체
- 전문연구 역량 중심	- 향토사 연구자 중심	- 학예사, 학예관 중심	- 시민과 활동가 중심
- 역사, 사회, 생태에 대한 전문 연구	- 거제의 마을 사료의 수집과 마을사 집필	- 고대사 유적에 대한 발굴과 조사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거제의 환경생태 연구
- 거제 단위의 연구 및 거제의 관계사 연구	- 거제 내부의 미시적 향토사 연구	- 지표조사와 채집을 통한 연구	- 현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제 형성

- 향후에 거제시립박물관이 건립되면 거제학 관련 기관은 거제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거제문화원과 거제시립박물관이 공존하며, 거제학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 각각의 기관과 단체는 주요 주체와 연구 분야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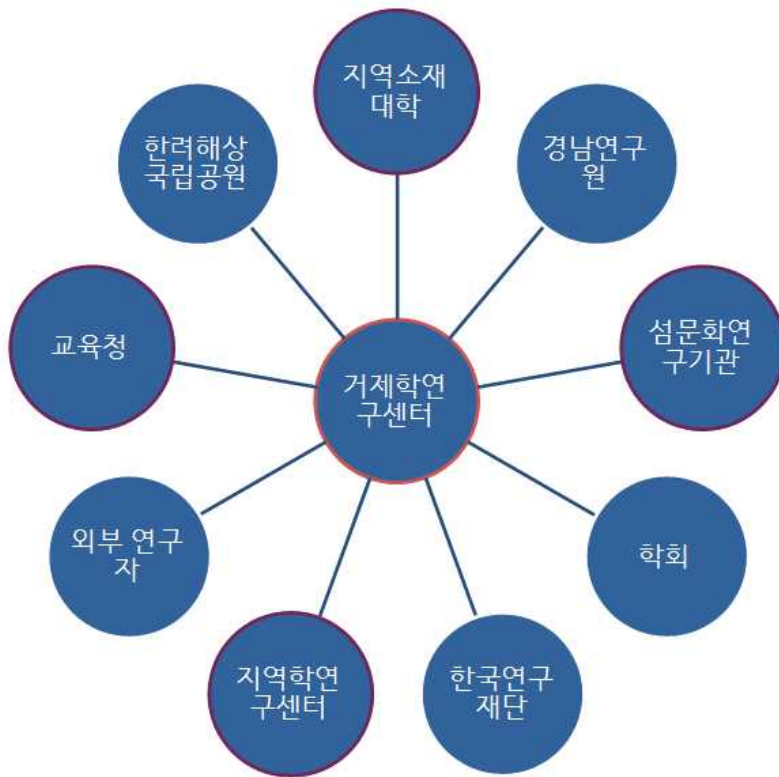
- 거제학연구센터는 박사급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향토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제문화원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인 지위와 역할의 측면에서 거제학연구센터가 전문연구 역량을 통해 거제의 역사, 사회문화, 생태환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거제문화원은 거제 내부의 미시적 향토사 연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다르며,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분업적·협력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향후에 거제시립박물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고대사 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거제학연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거제시립박물관에 전문 학예사와 학예관이 확보되면, 거제학연구센터의 역사 분야 연구와 협력·분업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제의 고대사 영역에 대한 해명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환경생태 영역에서는 거제와 통영 지역에서 활동해 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기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거제 지역의 사회와 역사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제학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들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고, 사회역사 교과 교사들이 거제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거제의 영역이 현재의 거제시 경계로 확정된 것이 거제의 긴 역사 속에서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대사 연구 등에서 거제시 외부 지역을 거제학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생태 영역에서도 지구 생태계가 국가나 지자체 경계로 인위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역 단위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거제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

- 거제 외부의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은 거제학연구센터 설립기에 MOU를 체결을 시작하고 발전기에는 공동사업이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부산경남권, 동남권 지역 소재 대학인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 산재하는 연구자들 가운데 거제를 비롯한 동남권 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거제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제학연구센터의 상위 기관이 될 경남연구원과는 분업적 관계를 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남연구원이 지니고 있는 정책개발 역량 및 문화재 조사·발굴 역할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거제의 지역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 분담은 거제학연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림20> 거제 외부의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나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등 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온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거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지닌 가치를 보다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선 기관들의 성과를 흡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역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환경사회학회 등 지역학이나 지역의 역사, 생태환경 등에 관심을 가진 전국적 단위의 학회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교환이나 학술행사의 기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 거제학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차원의 연구기금의 배분 기능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연

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과의 협력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거제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 유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서울학, 인천학, 제주학, 강원학, 전주학 등 여러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학 연구센터나 지방연구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학 연구기관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으며, 앞선 기관들의 경험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지방연구원이나 지역학연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 학회와 같은 연구집단뿐만 아니라, 거제 외부의 개별 연구자들 역시 협력의 대상이다. 개별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공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구자들이 거제에서 중단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거제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 거제학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연수사업 유치나 거제학 수업 모델 개발, 거제학 수업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거제의 역사 유적이나 사회문제 현장을 교육의 장소로 개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거제학의 중요 영역으로서 생태환경 영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후위기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 사업이나 보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리공단을 매개로 하여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등 동남해안 지역의 지자체 및 지역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6. 거제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거제학연구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에 해당한다. 거제학과 관련된 기존 자료의 수집과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구술·채록을 비롯한 새로운 자료의 생산과 축적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거제학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연구센터의 설립기에 시작하고, 발전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품을 구축해야 한다.

<표16>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상세내용

아카이브 자료 구축 내용 및 시스템 관리		
분류	상세내용	예산활용 범위
거제학 자료 구축 및 디지털화	마을 소장 문서의 디지털화 고문서 등 기증자료 디지털화	기증자료 수집, 위탁
	거제학 연구물 DB	기증자료 수집, 자체
	거제 관련 사진, 영상, 구술자료 구축	기증자료 수집, 자체, 위탁
기획과제	거제학 아카이브 자료 목록집 발간	자체, 위탁
	무형유산의 보전 관련 정책 과제 진행	자체, 위탁
	[거제사], [거제학문화총서], [거제학학술총서] 발간	자체, 위탁
아카이브 시스템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제학 아카이브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위탁, 자체

- <표16>에서 밝힌 것처럼, 예상되는 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1) 기존 아카이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전환, 2) 거제시기록관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 3) 포로수용소 관련 자료의 추가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4) 거제학 관련 기존 출판물에 대한 조사 및 디지털화, 5) 거제문화원 등 거제시 내부 기관들의 자료에 대한 정리와 아카이브 구축사업, 6) 위 사업들과 병행하여 기존 아카이브와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거제학 아카이브 시스템의 통합 구축 및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서버 및 구축자료의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2) 거제학 관련 디지털 콘텐츠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거제학 자료의 지속적인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거제학 연구물 DB수집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며, 기관 및 개인 소장의 사진, 구술, 영상, 음향자료의 수증도 추진해야 하며, 연구조사 후 자체 제작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 서버 예치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 자료의 수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3) 자체적인 자료의 생산과 제작 등이 필요하다.

5-7. 거제학 토대사업

- ‘거제학 토대사업’은 거제사회 내에서 거제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고, 거제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토대사업은 학생들을 비롯한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능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초·중고 거제학 경진대회: 거제의 역사와 관련된 초·중·고 학생 대상의 사생대회와 글짓기 대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거제의 역사, 민속, 생태환경, 사회현상에 대한 조사와 변화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 연구를 지원(연구집단 공모 사업 또는 경진대회, 교사들과의 협력 및 의견 수렴 필요)
- 2) 사회과, 역사과 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거제학 수업 모델 개발’과 ‘거제학 교재 개발’ 사업 추진
- 3) 거제시민 작은연구 대회: 거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들을 포착하여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5-8. 거제학 연구사업

- ‘거제학 연구사업’은 거제학연구센터 설립과 더불어 전문연구인력의 확충을 통해 진행될 거제의 역사, 사회, 생태 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연구사업을 말한다. 각 영역의 연구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17>과 같다.

<표17> 거제학 영역별 연구사업

분야	역사	사회문화	생태환경
전문 연구 사업	- 거제 역사유적에 대한 조사와 시굴 발굴 사업 - 거제의 고대와 중세 시대 자료의 수집과 연구 - 역사적 자료의 연구를 통한 역사문화 콘텐츠화 사업 - 거제의 중요 인물사 연구	- 일제강점기 거제의 생활사, 경제사, 문화사 연구 - 거제포로수용소 자료의 수집과 해체,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화 - 거제의 조선산업 발전과 근대화 과정 연구 - [거제의 생활문화사] 총서 저술	- 거제의 동식물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 사업 - 거제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와 보호 사업 - 기후위기에 따른 거제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 연구 - [거제의 생태환경] 총서 발간
공동 연구 사업	- 거제 현대사 기술채록 사업 - [거제시사] 편찬 사업 - 거제학 수업 교재 개발 사업 - 거제의 역사 사회문화 생태환경 연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업		

5-9. 거제학 협력사업

- ‘거제학 협력사업’은 거제 내외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이나 협력연구사업을 말한다.
- 또한 협력사업은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이기도 하다. 거제학연구센터가 발전기로 접어들게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벌여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 거제학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에게 사업 기획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거제학연구센터 설립기에 연구원들을 공채할 때 연구역량뿐만 아니라 사업기획능력 역시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표18> 거제학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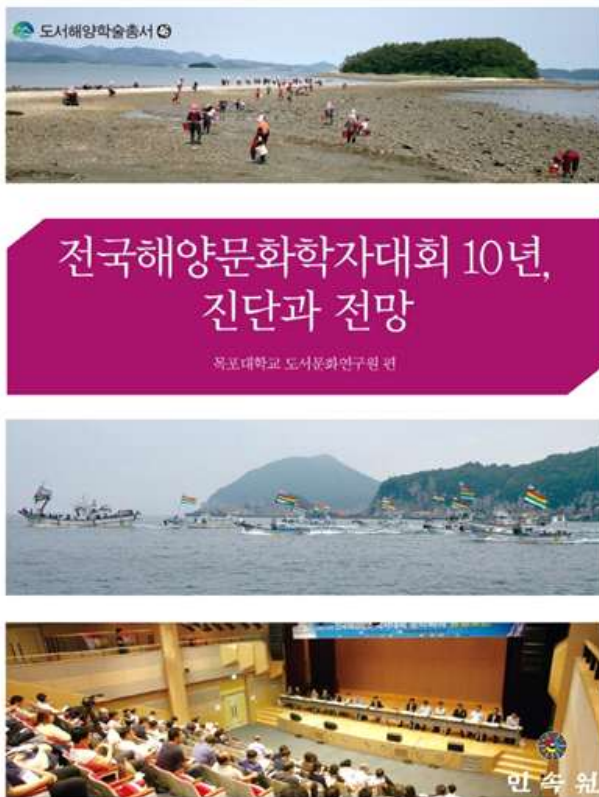
지역소재 대학	경남연구원	전국 학회	섬문화연구원	거제문화원
- 거제의 역사 사회문화 생태환경에 대한 공동연구 - 지역소재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의 거제학 연구와 발표 지원	- 거제의 고대 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 사업	- 거제와 남도의 섬문화에 대한 비교연구 - 거제의 사회경제와 타 지역의 비교연구	- 거제의 해양교류사 연구 협력 - 남도의 섬문화와 협력 연구 - 남도의 섬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	- [거제시사] 편찬사업 협력 - 거제 현대사 구술채록 사업 협력
교육청	지역학연구센터	외부 연구자	한려해상국립공원	거제대학교
- 초·중·고 학생 사업 협력 - 거제학 수업 모델 개발과 수업 교재 개발 협력 - 교원연수 프로그램 유치	- 지역의 역사문화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과 교류 - 지역학 연구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	- 외부 연구자의 거제 연구 지원 및 발표 기회 제공 - 논문과 저서에 저술에 대한 지원 및 우수 연구 시상	- 거제의 해양생태계 조사 사업 - 거제의 해안과 섬의 생태계 조사 사업	- 장기적으로 사업으로서 거제학협동과정 개설

5-10. 거제학 도약사업

- ‘거제학 도약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거제학 연구의 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고 학계 내에서 거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시 거제 연구의 부재와 후속연구자의 부재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벤트성 사업’이라 할지라도 거제와 거제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 거제학 도약사업으로는 2023년에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유치할 것을 제안한다.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유치의 목적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거제학에 대한 연구자 및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한다는 데 있다.
- 거제학연구센터를 2023년 상반기에 설립하고, 연구센터의 초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유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 2023년 7-8월에 300명 규모의 제13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거제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거제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2024~2026년에 무렵에는 대량의 거제학 연구 논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21>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10주년 기념대회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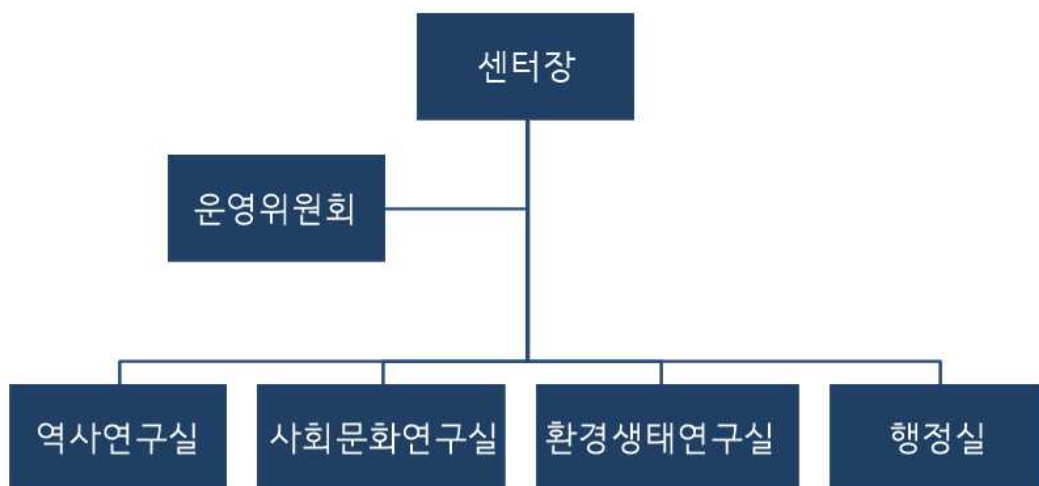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2021년으로 제11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문화학자들의 학술대회이다. 제11회 대회는 인천에서 개최되며 ‘접경 수역 도서의 상생 경제발전과 평화 정책’을 주제로 인천대학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2일차에는 학술대회, 3일차에는 인천 역사문화유적 답사로 진행되었다.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11회 대회의 주최는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했다. 주관 단체로는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

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공원연구원, 인하대학교, 인천연구원, 인천통일+센터, (사)한국섬재단,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4단계 BK21사업팀, (사)황해섬 네트워크 등이 함께 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5-11. 거제학연구센터 조직 구성

- 거제학연구센터는 센터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한다.
- 연구센터 산하에는 역사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환경생태연구실 등 전문적인 연구사업과 협력사업을 담당할 3실을 둔다. 각각의 연구실은 박사급 전문 연구원이 책임지도록 하며, 이를 보조할 석사급의 전문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할 행정실을 둔다.
- 그 이외에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나 부서를 갖추되, 이러한 조직의 확장과 발전은 연구센터의 발전계획과 거제학 진흥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거제학연구센터의 인력 구성은 거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의 연구진을 영입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선발해야 한다.
- 센터장과 연구위원은 전문적인 연구역량과 더불어 사업기획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림22> 거제학연구센터 조직도



5-12. 거제학연구센터 재정 계획

- 거제학 연구센터 재정의 단기적 방안은 거제시의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조례를 통해서 마련해야 한다. 이때 재정의 구체적인 내역은 <표19>와 같다.
- <표19>의 재정 계획은 설립기 3년 동안의 재정이다. 연구 기관의 운영과 사업 기획의 경험이 있고 전문 연구역량을 갖춘 센터장 1인, 연구역량과 사업기획역량을 동시에 갖춘 박사급 연구위원 3인, 석사급 연구원 2인, 행정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와 기본적인 센터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 운영비는 회의 비용과 외부와의 네트워킹 업무 및 가장 기본적인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었다.

<표19> 거제학연구센터 재정 계획

비용		인원	산출기초	예산액
인건비	센터장(4급 상당)	1	4,500,000x12월x1	54,000,000원
	전문연구위원(5급 상당)	3	3,700,000x12월x3	133,200,000원
	전문연구원(6급 상당)	2	3,000,000x12월x2	72,000,000원
	일반직 행정원(9급 상당)	1	2,600,000x12월	31,200,000원
운영비	회의비		500,000x12월	6,000,000원
	센터 유지비		1,000,000x12월	12,000,000원
	포럼, 심포지움, 워크숍 등 학술회의비		1,000,000x12월	12,000,000원
소계				320,400,000원
※인건비는 기본급만 책정함, 제 수당 등은 지자체와 협의 진행				

- 거제학 진흥에 필요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 및 토대·연구·협력 사업, 그리고 도약 사업의 추진은 거제학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거제시와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거제학연구센터 발전기에는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확충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구센터 내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
- 거제학연구센터 발전기와 안정기에는 연구 성과물의 편집과 출간을 하도록 하고, 아카이브 사업 추진비와 운영비를 산정해야 한다.

- 거제학연구센터 안정기에는 10년 이후의 재정적 독립을 위한 기금 마련과 중앙 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3.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단계별 계획

-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0>과 같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 준비기와 설립기 4년의 주요 과제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제도의 구축, 거제학연구센터의 설립, 토대사업을 통한 거제학에 대한 시민적 지지 확보, 도약사업을 통해 거제학에 대한 관심 제고, 연구사업의 의제 개발과 내실있는 연구의 진행 등이 될 것이다.
- 발전기 3년의 주요 과제는 아카이브의 구축, 토대사업과 연구사업의 안정화와 내실화, 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구센터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가운데 조직의 확대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안정기 4년의 주요 과제는 향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전망을 수립하고 재정적 독립을 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내의 지역학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20>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단계별 계획

	단기(22~25년) 준비기+설립기	중기(26~28년) 발전기	장기(29~32년) 안정기
연구센터의 설립과 발전 조직화	- (가) 거제학 연구 진흥 및 거제학 연구센터 설립 지원 조례 제정 - '거제학포럼'을 통한 거제 내외의 연구 역량 연결, 결집 - 연구센터의 건설 - 거제 내부 연구기관들과 협업 분업 체계 구축 - 경상대, 신라대, 역사교사모임 등과 연계	- 연구센터 활동의 체계화 및 정상화 -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본격 추진 - 동남해안 지역 연구역량의 네트워크화	- 연구센터의 재정적 독립 추진 - 국가 지원 연구기관으로의 전환 모색 - 기금 조성
거제학 정립 저변확대	- 역사, 문화, 생태 분야의 단기 과제 및 아카이브 구축 사업 - 초중고, 사회역사교사, 시민과 함께하는 거제학 프로그램 추진 - 사회역사교사모임과 협력으로 거제학 수업모델 개발 - 거제학 도약사업 추진	- 거제학의 영역별 전문 연구역량 강화 - 학문후속세대 양성 추진 - 연구성과의 정기적 발표와 확산, 총서 발간 - [거제학연구] 학술지 발간 - 거제학 연구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실행	- 국내 지역학 연구를 선도하는 지역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

5-14.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전망

- 아래의 <표21>은 <표14>의 로드맵을 변형한 것이다. 10년간의 주요 사업의 로드맵과 더불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이루어야 할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어 있다.
- 네트워크 형성의 측면에서 거제학연구센터는 거제학 연구의 선도기관이면서 동시에 다른 거제학 연구기관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천, 목포, 남해, 제주 등 남도 섬문화연구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
- 발전기에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용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정기에는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 센터를 구축하도록 한다. 거제의 역사·사회문화·환경생태 자원에 대한 조사와 아카이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과 자료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표21>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 로드맵과 전망

2021	준비기 2022	2023	설립기 2024	2025	2026	발전기 2027	2028	2029	안정기 2030	2031	2032
로드맵 설정											
제도 구축								→ 제도개선 사업 추진			
거버넌스 형성								→ 기금형성, 재정독립 위원회 추진			
내부 네트워킹								→ 거제학 연구 네트워크의 허브			
외부 네트워킹								→ 남도 섬문화연구 네트워크 구축			
아카이브 구축								→ 세계적 수준의 아카이브 센터 구축			
거제학 토대사업								→ 시민주도형 지역학 모델 구축			
거제학 연구사업								→ 전문연구역량의 확충과 재생산			
거제학 협력사업								→ 국내 지역학 선도 연구기관 도약			
거제학 도약사업								→ 제2의 도약사업			

- 거제학연구센터의 기본 사업과 관련하여, 토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주도형 지역학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도록 하며, 전문 연구역량의 확충과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지역학의 선도적인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서 거제학연구센터 설립 10주년에는 또 한번의 도약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연구센터 사업의 발간과 성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안정기에는 10년의 성과를 정리·확산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제2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재정적 독립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지속적인 토대사업을 통해 거제학의 기반을 확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센터의 재정적 독립과 더불어 조직적 전환과 발전의 전망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연구원법의 제한을 풀거나 다른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6. 연구 결과의 요약

1. 거제는 조선산업 중심의 급속한 근대화를 이루었으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의 증대, 기후위기의 가속화, 거제 내부의 양극화, 조선산업 일변도의 발전의 한계, 동남권 신공항 건설 예정 등 내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 거제가 직면한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 전략의 다양화와 균형적 발전, 파괴되어 온 역사문화의 회복, 생태환경 자원의 보호와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생산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제의 역사, 사회문화, 환경생태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거제학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3. 거제학은 거제의 지역성을 이루어 온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지리, 정치, 경제에 대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거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체성을 확보하며 거제인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둔 지역학을 말한다.
4. 거제 지역은 거제학을 추진할 전문적인 연구 기관의 부재와 연구역량의 부족,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재, 거제학을 담당할 지역 대학의 부재 등 지역학의 안정적인 추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거제학 연구의 성과도 미비하며 대중적 관심도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5. 이러한 악순환을 중단하고 거제학의 진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거제학의 선도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연구역량을 모집함으로써 학술적 도약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거제학 진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거제시와 시의회를 지원으로 (가)거제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6. (가)거제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가)거제학포럼을 단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7. (가)거제학연구센터 설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지방연구원법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광역지자체와 특별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제도적 지원은 거제시 조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8. 조례 제정 방식은 ‘지역학 연구 및 진흥 조례’ 방식과 ‘지역학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방식이 있다. 거제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을 위주로 하면서도 전자의 방식이 가진 장점을 종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9. 거제학연구센터가 설립되면, 기본적인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아카이브 구축, 토대사업, 연구사업, 협력사업을 매년의 계획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10. 거제학 진흥의 토대가 취약한 조건에서 거제학의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센터 설립기에 도약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거제학 도약사업으로서 한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2023년 7-8월에 거제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11. 이를 위해서 거제학연구센터는 역사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환경생태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 계획이 연차별로 수립되어야 한다.
12. 거제학 진흥과 거제학연구센터 발전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립기와 발전기에는 거버넌스와 제도를 구축하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각 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발전기에는 조직의 확대와 아카이브 구축으로 연구센터 사업을 본격화해야 한다. 안정기에는 연구성과의 확산으로 선도적인 지역학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이브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13. 10년간의 사업을 통해 거제학연구센터가 한국의 선도적인 지역학 연구기관이자 섬문화연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년의 성과를 모아서 조직적 발전과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또 한 번의 도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미디어 자료

『거제뉴스광장』, “기획연재③ 가덕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5.12.

『거제시민뉴스』, “기획연재① 가덕신공항, 거제의 미래를 말하다”, 2021.04.27.

『뉴스앤거제』, “기획연재② 공항도시로서의 거제시의 발전 방향”, 2021.05.12.

『전북일보』, “전주 시정발전연구소 없앤다”, 2015.08.31.

2. 논문과 저서 자료

거제시(2020), 「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보고서」, 거제시, 18쪽.

김대래(2001), “지역학 연구의 동향과 부산학의 과제”, 부산광역시 도시혁신위원회.

김학훈(2014), “한국의 지역학 30년: 성과와 전망”, 『지역연구』 30(4): 87-103.

박용구(1996), “지역학의 대상과 방법(론)”,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5-31쪽.

우정석·이승철(2018), “거제시 조선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잠김 효과”, 『국토지리학회지』 52(4).

유완(1985), “지역학의 정의와 재조명”, 『지역연구』 제1권,

이창식(2016), “지역학 연구와 구술자료 활용”, 『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7-38.

정삼철(2019), “지역학 활성화의 동향과 미래발전 과제”, 『월간공공정책』 164: 62-64.

정정숙(2014),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20), 「제주학연구센터 10주년, (가)제주학진흥원 설립과 제주학의 미래」, 제주학 연구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제5회 제주학대회 학술대회 자료집.

최재현(2005), “세계화시대의 지역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지』 8(2).

하병주(2007),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지중해지역연구』 9(1): 249-276.

<부록1> 거제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목록

번호	유적명	한자명	소재지
1	거제 내간리 내간 유물산포지	거제 내간리 내간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	거제 내간리 송곡 유물산포지	거제 내간리 송곡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	거제 동상리 남은골 유물산포지	거제 동상리 남은골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	거제 동상리 삼국시대 분묘유적	거제 동상리 삼국시대 분묘유적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5	거제 동상리 삼국시대분묘유적 앞들유적	거제 동상리 삼국시대 분묘유적 앞들유적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6	거제 동상리 성내 유물산포지	거제 동상리 성내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7	거제 동상리 안들 유물산포지	거제 동상리 안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8	거제 명진리 느티나무	巨濟 明珍里 느티나무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9	거제 법동리 고당 유물산포지	거제 법동리 고당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0	거제 법동리 법동 유물산포지1	거제 법동리 법동 유물산포지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1	거제 법동리 법동 유물산포지2	거제 법동리 법동 유물산포지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2	거제 법동리 법동삼거리 유물산포지	거제 법동리 법동삼거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3	거제 법동리 유물산포지	거제 법동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4	거제 서정리 뒷외 유물산포지	거제 서정리 뒷외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5	거제 서정리 유물산포지	거제 서정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6	거제 소랑리 소랑 유물산포지1	거제 소랑리 소랑 유물산포지1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7	거제 소랑리 소랑 유물산포지2	거제 소랑리 소랑 유물산포지2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8	거제 송덕비군	巨濟 頌德碑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19	거제 옥산리 등말 유물산포지	거제 옥산리 등말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0	거제 외간리 동백나무	巨濟 外看里 冬栢나무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1	거제 외간리 외간 유물산포지	거제 외간리 외간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2	거제기성관	巨濟岐城館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3	거제세진암 목조여래삼존불좌상	巨濟洗塵庵 木造如來三尊佛坐像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4	거제질청	巨濟秩廳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5	거제초등학교 본관	거제초등학교 본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6	거제향교	巨濟鄉校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7	거제향교 서적	巨濟鄉校 書籍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8	거제향교 제기	巨濟鄉校 祭器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29	거제현관아	거제현관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0	골말 지석묘	골말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1	괴목정 고분군	槐木亭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2	남산패총	南山貝塚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3	동림리 지석묘군	東林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4	명진리 유적	明珍里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5	반곡서원	盤谷書院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6	반곡서원 유허비	盤谷書院 遺墟碑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7	법동리 분청도요지	法東里 粉靑陶窯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8	별신굿	별신굿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39	산달도 전등패총	山達島 前登貝塚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0	산달도 후등패총	山達島 後登貝塚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1	서상리 지석묘군	西上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2	서정리 하마비	西亭里 下馬碑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3	세진암	洗塵庵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4	소랑리 지석묘군	小浪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5	열녀칠원 윤씨지려	烈女漆原 尹氏之閭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6	오수리 토기산포지	烏首里 土器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7	옥산금성 비문	玉山金城 碑文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8	옥산성지	玉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49	옷바위 지석묘군	옷바위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50	외간리 고분군	外看里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51	외간리 지석묘군 I	外看里 支石墓群 I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52	외간리 지석묘군 II	外看里 支石墓群 II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53	죽림미륵당(민속-할매 미륵불)	竹林彌勒堂(민속-할매 미륵불)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54	가라산봉수대	加羅山 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55	갈곶리 새발자국 화석산지	갈곶리 새발자국 화석산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56	거제 해금강	巨濟 海金剛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57	근포 유물산포지	근포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58	다대리 지석묘군 I	多大里 支石墓群 I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59	다대리 지석묘군 II	多大里 支石墓群 II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0	다대산성지	多大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1	다포리 지석묘군 I	多浦里 支石墓群 I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2	다포리 지석묘군 II	多浦里 支石墓群 II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3	대포 지석묘	대포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4	대포패총	대포貝塚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5	명사 지석묘	明沙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6	쌍효문	雙孝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7	여차 지석묘군	여차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8	저구리 지석묘군	猪仇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69	탑포리 지석묘군 I	塔浦里 支石墓群 I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70	탑포리 지석묘군 II	塔浦里 支石墓群 II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71	탑포산성지	塔浦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72	함목 지석묘군	함목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73	능포동 봉수대	菱浦洞 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74	능포동 지석묘군	菱浦洞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75	강망산봉수대	江望山 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76	덕포동 유적	德浦洞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77	가배량성	加背梁城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78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거제 학동 진석중 가옥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79	거제 학동의 동백림 및 팔색조 번식지	巨濟 鶴洞의 冬栢林 및 八色鳥 繁殖地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0	만호선정비	萬戶善政碑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1	부춘리 사지	富春里 寺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2	산양리 지석묘군	山陽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3	연담 고분군	연담 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4	영북 지석묘군	영북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5	오송리 고분군	五松里 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6	울포산성지	栗浦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7	의춘옥씨 열행기실비	宜春玉氏 烈行紀實碑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8	자헌대부 김해김한석 효자사적비	資憲大夫 金海金漢錫 孝子事蹟碑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89	학동리 지석묘군	鶴洞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90	혜양사 불화	慧洋寺 佛畵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91	거제 술역리 내평숲	巨濟 述亦里 내평숲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2	거제 고도현치소지	巨濟 古郡縣 治所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3	동우조희주시혜불망비	東愚曹喜住施惠不忘碑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4	둔덕 산방산 석불	屯德 山芳山 石佛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5	마장 고분군	마장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6	마장 유물산포지	마장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7	방하리 고분군	芳下里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8	술역리 유물산포지	述亦里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99	술역리 지석묘군	述亦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0	영등만호비	永登萬戶碑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1	영등포 지석묘	永登浦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2	청마고향 시비	靑馬故鄉 詩碑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3	청마생가	靑馬生家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4	충혼탑	忠魂塔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5	폐왕성지	廢王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6	학산리 지석묘	鶴山里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107	가조도 신교 지석묘군 및 유물산포지	加助島 신교 支石墓群 및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08	가조도 실전 지석묘군	加助島 실전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09	거제 구영리 유물산포지	거제 구영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0	거제 구영리 추정지석묘	거제 구영리 추정지석묘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1	거제 덕호리 신촌 유물산포지	거제 덕호리 신촌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2	거제 사등리 대리 유물산포지	거제 사등리 대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3	거제 사등리 유물산포지1	거제 사등리 유물산포지1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4	거제 사등리 유물산포지2	거제 사등리 유물산포지2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5	거제 성포리 사근들 유물산포지	거제 성포리 사근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6	거제 성포리 사등 유물산포지	거제 성포리 사등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7	거제 성포리 유물산포지	거제 성포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8	거제 시방리 유물산포지	거제 시방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19	거제 오랑리 달팽이들 유물산포지	거제 오랑리 달팽이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0	거제 오랑리 절골 유물산포지	거제 오랑리 절골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1	거제 오랑성 주변 유물산포지	거제 오랑성 주변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2	거제 외포리 상포 유물산포지	거제 외포리 상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3	거제 장목리 군항포 유물산포지	거제 장목리 군항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4	거제 지석리 유물산포지	거제 지석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5	거제 창호리 군령포 유물산포지	거제 창호리 군령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6	거제 창호리 상이골들 유물산포지	거제 창호리 상이골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7	거제 창호리 유물산포지	거제 창호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8	거제 창호리 큰등 유물산포지	거제 창호리 큰등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29	거제 청곡리 청곡 유물산포지	거제 청곡리 청곡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0	거제 칠진놀이	巨濟 칠진놀이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1	견내량 왜성지	見乃梁 倭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2	고사인 천일두처 전주이씨 열행 기실비	故士人 千日斗妻 全州李氏 烈行紀實碑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3	광리 유물산포지	廣里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4	광리 지석묘	廣里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5	금호사	錦湖祠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6	덕호리 수것들 유물산포지	덕호리 수것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7	두동 지석묘군	두동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8	망치산 봉수대	望峙山 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39	사등성지	沙等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0	사인 남공문우 가선대부 남공태 우 적덕불망비	士人 南公文祐 嘉善大夫 南公泰祐 積德 不忘碑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1	성내 지석묘군	성내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2	성파하동주선생묵적비	星坡河東州先生墨蹟碑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3	성포산성지	城浦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4	신광사	神光寺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5	오랑리 지석묘군	烏良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6	오랑석조 여래좌상(신광사)	烏良石造 如來坐像(神光寺)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7	오랑성	烏壤城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8	유인 김해김씨 효열기실비	孺人 金海金氏 孝烈紀實碑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49	지주양공필청덕인애비	地主梁公弼淸德仁愛碑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50	청곡리지석묘	靑谷里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51	취도비석	吹島碑石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52	통제사 조경비석	統制使 趙敬碑石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53	효열각	孝烈閣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154	당산성지(당등 산성지)	堂山城址(堂嶝 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55	아양리삼층석탑	鵝陽里 三層石塔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56	거제 아주동고분	巨濟鵝洲洞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57	내곡 고분군	內谷 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58	내곡 분묘군	內谷 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59	내곡 지석묘군	內谷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0	아주동 지석묘군	鵝洲洞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1	아주현성지	鵝洲縣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2	옥포정	玉浦亭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3	거제 동산 유물산포지	거제 동산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64	거제 연사리 연중 유물산포지	거제 연사리 연중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65	거제 연사리 큰마을 유물산포지	거제 연사리 큰마을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66	거제 오비리 조선시대 건물지유	거제 오비리 조선시대 건물지유적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적		
167	거제 죽토리 유물산포지	거제 죽토리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68	거제 한내리 모감주나무 군	巨濟 汗內里 모감주나무 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69	거제 한내리 성혈암	거제 한내리 성혈암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0	거제 한내리 조선시대 생활유적지	거제 한내리 조선시대 생활유적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1	거제민속박물관 내 지석묘	巨濟民俗博物館 內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2	거제 한내리묘감주나무군	거제 한내리묘감주나무군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3	경절사	景節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4	고사인문화유인순처 김해김씨 효열기실비	故士人文化柳寅淳妻 金海金氏 孝烈紀實碑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5	고참봉의춘옥상호지처정부인 칠원윤씨 정려중건비	故參奉宜春玉相瀨之妻貞夫人 漆原尹氏 旌閭重建碑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6	대촌 지석묘	대촌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7	덕치리 지석묘군	덕치리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8	도론골 지석묘	도론골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79	명하 지석묘군	明下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0	문암 지석묘	문암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1	손도봉 가옥	손도봉 家屋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2	송정리 지석묘군	松亭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3	야부 지석묘군	冶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4	옥명환처 칠원윤씨 효열비	玉明煥妻 漆原尹氏 孝烈碑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5	윤영의배 의령남씨 정렬각	尹永艤配 宜寧南氏 貞烈閣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6	이남 지석묘군	梨南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7	이목리 분묘군	梨木里 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8	이목리 석관묘 유적	梨木里 石棺墓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89	이목리 유적	梨木里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0	장터고개 고분군	장터고개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1	죽동 지석묘 상석산지	죽동 支石墓 上石產地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2	죽천사	竹泉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3	죽토삼거리 고분군	竹土三距離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4	죽토삼거리 지석묘군	竹土三距離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5	중리 지석묘군 및 무문토기산포지	중리 支石墓群 및 無文土器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6	중촌 지석묘군	中村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7	참샘이 고분군	참샘이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8	참샘이 지석묘	참샘이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199	충효사	忠孝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0	충훈사	忠勳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1	풍어놀이	豐漁놀이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2	풍어제 및 용왕제	豐漁祭 및 龍王祭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3	한곡 지석묘군	汗谷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4	한내리 지석묘군	汗內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5	효열부월성이씨지비	孝烈婦月城李氏之碑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6	훈련원첨정 둔암윤공 표도비	訓練院僉正 遯巖尹公 表塗碑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207	식성군 이공운용 장군 영세불망비	息城君 李公雲龍 將軍 永世不忘碑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08	옥포대첩 기념탑	玉浦大捷 紀念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09	옥포성	玉浦城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10	장승포덕포리이팝나무	長承浦 德浦里 이팝나무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2리
211	주종찬지사 추념비	朱宗贊志士 追念碑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1리
212	통훈대부 중추원의관 주운문처 밀성박씨 지려	通訓大夫 中樞院議官 朱雲文妻 密城朴氏 之間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2리
213	팔랑개 어장놀이	팔랑개 어장놀이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2리
214	행만호 김공창우 선정비	行萬戶 金公昌禹 善政碑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15	행만호 김후형구 영세불망비	行萬戶 金侯亨九 永世不忘碑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16	효자장사랑 전주이공 헛대 유적비	孝子將仕郎 全州李公 玃大 遺蹟碑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1리
217	거제 물봉선 자생지	巨濟 물봉선 自生地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18	거제 외도 공룡발자국 화석	巨濟 外島 恐龍발자국 化石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19	거제와현봉수대	巨濟 臥峴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0	거제윤돌섬상록수림	巨濟 윤돌섬 常綠樹林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1	거제지세포봉수대	巨濟 知世浦 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2	공고지 유적	공고지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3	구조나성	舊助羅城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4	구조라 지석묘군	舊助羅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5	내도 유적(패총·지석묘)	內島 遺蹟(貝塚·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6	망치리 지석묘군	望峙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7	소동리 지석묘군	小洞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8	신촌 석곽묘 유적	新村 石槨墓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29	양화 지석묘군	양화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0	옥림리 지석묘군	玉林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1	와현리 지석묘군	臥峴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2	자헌대부 행삼도 통제사 신공관 호 영세불망비	資憲大夫 行三道 統制使 申公觀浩 永世不忘碑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3	지선암(현재 영은사)	知仙庵(현재 영은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4	지세포리지석묘	知世浦里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5	지세포성	知世浦城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6	지심도 유적	只心島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7	지심도 포진지	只心島 砲陣地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238	간곡 유적	簡谷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39	거제 구영리 정신옥들 유물산포지	거제 구영리 정신옥들 유물산포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0	관포리 토기산포지	冠浦里 土器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1	구영등성	舊永登城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2	구영리 고분군	舊永里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3	구울포성	舊栗浦城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4	군위대	軍威臺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5	군위봉 유적	軍威峰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6	굴까리가세	굴까리가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7	궁농 지석묘 및 유물산포지	궁농 支石墓 및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8	김영삼 전대통령 생가	金永三 前大統領 生家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49	농소리 유적	農所里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0	답답고개 지석묘	답답고개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1	대금리 지석묘군 I	大錦里 支石墓群 I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2	대금리 지석묘군 II	大錦里 支石墓群 II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3	대금리 토기산포지	大錦里 土器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4	방시만노석	放矢萬弩石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5	방시만노순석비	防矢萬弩盾石碑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6	상포 무문토기산포지	上浦 無文土器 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7	송정열 가옥	송정열 家屋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8	송진포 석표	松眞浦 石標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59	송진포 아랫마을 지석묘군	松眞浦 아랫마을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0	송진포 지석묘군	松眞浦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1	송진포 회곽묘	松眞浦 灰槨墓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2	송진포왜성	松眞浦倭城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3	신촌 유물산포지	신촌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4	신촌 유물출토지	신촌 遺物出土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5	영등왜성지	永登倭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6	외포리 소계 석조약사여래좌상	외포리 소계 石造藥師如來坐像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7	유호리 토기산포지	柳湖里 土器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8	율천리 지석묘군	栗川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69	이수도패총	利水島貝塚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0	장목고분(간곡고분)	長木古墳(簡谷古墳)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1	장목진객사	長木鎭客舍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2	장목진객사 내 선정비군	長木鎭客舍 內 善政碑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3	장문포왜성	長門浦 倭城(長木倭城)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4	장흥사 지장 보살도	長興寺 지장 보살도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5	제지섬 유적	제지섬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6	중금산성지	中錦山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7	황포 지석묘군	黃浦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8	황포리 아랫마을 유적	黃浦里 아랫마을 遺蹟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279	거제옥여봉봉수대	巨濟 玉女峰 烽燧臺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
280	마전동 지석묘	麻田洞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동
281	거제하청 북사지(매장)	巨濟河淸 北寺址(매장)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2	거제하청 북사지(불교)	巨濟河淸 北寺址(불교)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3	동리 고분군	동리古墳群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4	사환 지석묘	巳還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5	성동 지석묘군	성동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6	손요한원장 기념비(외 8기)	손요한원장 기념비(외 8기)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7	와항 지석묘	와항 支石墓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8	정수사지 부도	淨水寺址 浮屠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89	창동 유물산포지	창동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90	칠(칠)천도 옥계 지석묘군	七(漆)川島 옥계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91	칠(칠)천도 장곶 토기산포지	七(漆)川島 장곶 土器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92	칠(칠)천도 연구 유물산포지	七(漆)川島 蓮龜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93	하청리 유물산포지	河淸里 遺物散布地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94	하청리 지석묘군	河淸里 支石墓群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295	하청성지	河淸城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부록2>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6.09.]

(제정) 2021.06.09 조례 제3778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정책과

연 락 처 : 063-281-2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학을 진흥하고 전주 정체성을 정립하며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확산하여 전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전주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주학”이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주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학의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전주학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학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4. 전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주학 진흥사업) 시장은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2. 전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3. 전주학 관련 연구 성과의 활용 및 확산
4. 전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5. 전주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6. 전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
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전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 등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업무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전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전주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1.6.9. 조례 제3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3>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5. 13(목) 10:00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 화 경 제 위 원 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전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최근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지역을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별 지역 특성과 가치를 취합하고 연구하며 재정립하기 위한 지역학이 미래상 구현 및 지역발전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전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전주정신과 지역만의 고유 특성을 정립할 수 있는 전주학을 진흥하고 지역사회로 확산하여 전주 시민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진흥계획 수립·시행,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 라. 전주학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안 제14조)
- 마. 의견청취 및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5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와 관련된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건축 등 종합적인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전주의 근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학이란 자기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후의 세계에서 탄생한 신흥 독립 국가, 대체로 지배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이해되어져 연구되어온 학문으로 국가가 다른 나라나 지역을 연구하여 이익과 지배를 지속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21세기 지역 정보화시대는 국제화와 개방화로 인해 세계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학이 재정립되고 각 민족의 문화와 개별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역 고유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 보다 나은 전주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전주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주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전주학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으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록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8.12.31.]

(제정) 2013-03-20 조례 제 1020호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 1644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11-23 조례 제 17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 1927호

(일부개정) 2018-12-31 조례 제 2152호

관리책임부서 : 문화정책과

연 락 처 : 0647103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9.27.>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둔다. <개정 2017.9.27.>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7.9.27., 2018.12.31.>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및 제주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6.11.23., 2017.9.27.>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739호, 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8
----------	-----

발의연월일 : 2013. 2. .

발 의 자 : 강경식·강창수·이선화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정이유

- 제주도는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지중해의 중심적 거점으로써 제주도 위상정립과 제주지역의 전통문화 전승 활성화, 제주학연구 확산을 통해 제주학의 대중화 실현이 필요함
- 제주학과 관련 있는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체계정립을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위치에 대한사항(제1조~3조)
- 사업과 연구조사에 대한 사항(제4조~제5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제6조~제11조)
- 제정지원에 대한 사항(제12조)

○ 공무원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3. 1. 17~23(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및 제주발전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타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해당

② 관계 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제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관련조항 :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향후 5년간 38억원이 소요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총계	3,800	400	600	800	1,000	1,000
연구비	2,300	200	300	500	650	650
운영비	1,500	200	300	300	350	350
		인건비 150	인건비 250	인건비 250	인건비 300	인건비 300
		연구원 2인 보조원 1인	연구원 3인 보조원 2인	연구원 3인 보조원 2인	연구원 3인 보조원 4인	연구원 3인 보조원 4인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관리비 50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의원 발의의 경우>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경 식 의원 강 창 수 의원 이 선 화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3 (064 - 741 - 2052)